



JCI 인증의료기관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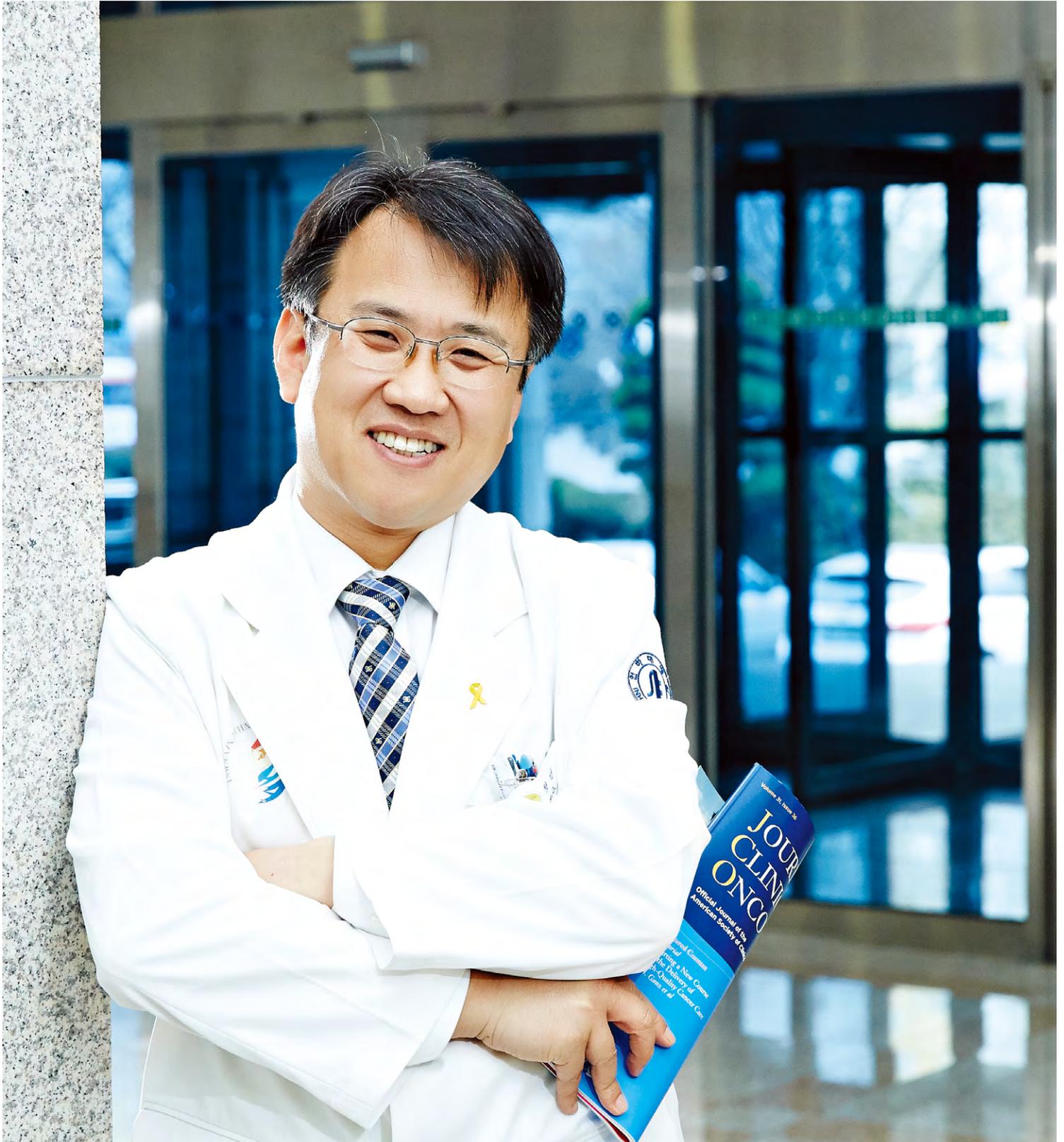
2014 0304

Vol. 104

Smart Choice Best Care

# 인하대병원

연중기획\_ 암 함께 이겨내요\_ 암시리즈 16 폐암센터 | Hello 닥터\_ 폐암센터 소장 류정선 교수 Medical point\_ 폐암 병기 - 미량항암약의 비밀





04



18



35

# 바람이 손짓하면 눈을 감고 취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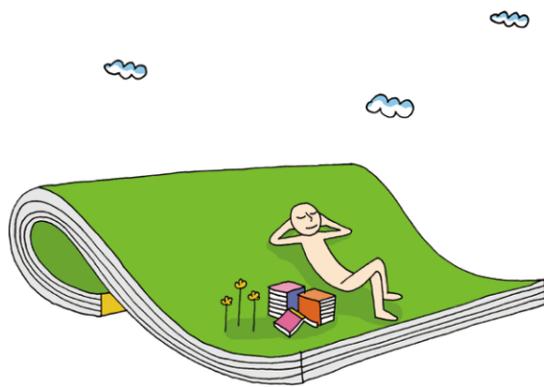
바람이 손짓하면 눈을 감고 취해보세요. 기분 좋은 느낌과 상쾌함에 새삼 놀라실 테니. 혹시 오시는 길에 사뿐히 내려앉은 꽃잎을 보셨나요? 색동옷을 입은 듯 어쩔 그리 고운지. 꽃과 내가 하나가 되어 물 따라 흐르고 싶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향긋한 꽃 내음이 지쳐있던 제 마음을 정화시키는 듯합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이 나에게 이따금 찾아와준다면 얼마나 삶에 위안이 될까 생각했습니다. 손에 잡힐 듯 멀어져가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돌고 도는 게 우리네 인생사라지만 험겨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던가요. 내가 내가 아니길. 지금 이 순간이 어서 빨리 지나가 주기를 하늘을 향해 울었겠죠? 하지만 그 시간은 결코 길지 않으니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사람은 저마다 삶에 무게를 가지고 태어난다 합니다. 시간과 장소만 다를 뿐.

신기루를 찾느라 헤매지 마시고 주위를 한 번 둘러보세요. 당신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이도 있을 테니. 제가 먼발치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부디 따스한 온정이 그대 가슴안에 환한 빛으로 간직되길 빌겠습니다.

윤혜정 / 소소한 일상의 작은 희망 중에서



## 인하대병원

Mar  
+  
Apr 2014 Vol.104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인하대병원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건강 한 걸음

#### 연중기획\_ 암! 함께 이겨내요\_ 암시리즈 16 폐암센터

- 04 Hello 닥터 폐암센터 류정선 교수
- 06 Medical point 폐암 병기 - 미량항암약의 비밀

- 09 Health touch 장기이식 - 신장
- 12 장기이식에 대하여...
- 13 궁금해요 봄철 알레르기
- 14 질환 돋보기 지긋지긋한 비염, 비디안신경절제술로 완치

### 사랑 두 걸음

- 16 Special people 국가대표 셰프 조우현
- 18 어디까지 가봤니 도시 꽃 여행
- 22 모르면 지는거다 오색 빛깔로 나른한 봄 탈출!

### 나눔 세 걸음

- 24 Today INHA 인하대병원 교수 직통 Hot - Line
- 26 병원 탐방 나은병원 강남규 부원장
- 27 INHA Focus 인하대병원 mobile homepage open
- 28 Change the INHA 환자안전 시리즈 ③ Time Out - 수술 과정 안전 절차
- 30 인하싹표 감사의 편지
- 31 세이브더칠드런 캠페인 참여
- 32 INHA Campaign 2014 CS슬로건 선포식
- 34 특특 약물상담 기생충 약, 증상이 없더라도 2주 이내 추가 복용
- 35 Hot issue 아시안게임과 함께하는 인하대병원

### INHA NEWS

- 36 병원소식 인하대병원소식
- 38 사진으로 보는 인하소식 + 파랑새 소식
- 39 Info desk 무료공개강좌 + 홍보영상



표지 류정선 교수 | 폐암센터 소장

# 류정선 교수



### Profile

류정선 교수는 미국 메이요클리닉 약물유전체센터에서 교환 교수로 있었고, 세계폐암학회, 대한암학회 및 대한폐암학회 등 다수 국내외 학회에서 연구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는 대한폐암학회 이사, 인하대병원 폐암센터 소장, 호흡기내과 과장을 맡고 있다. 전문분야는 폐암, 폐결절, 맞춤 항암치료이다.

## 폐암 치료계의 마일스톤으로 한국의 '류정선'을 불러주는 그날을 꿈꾼다

우리나라 사망률 1위인 폐암은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폐암 극복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폐암의 예후는 좋지 않기까지 해서 지난날까지 멀쩡하다가 갑자기 사망하는가 하면 반대로 계속 나쁘다가 갑자기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 비교적 생존율이 높다고 하는 1기 폐암도 경우에 따라서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중대한 연구를 마친 류정선 교수와 함께 했다.

(에디터\_이정희 포토그래퍼\_다뉴스튜디오 송인혁 실장)

### 폐암 병기 기준이 바뀌는 데 중요한 시금석으로

오랜 시간 고독한 자신과의 갈등과 어려운 숙제를 끝낸 그 날, 류 교수는 기쁨보다 피곤함이 더 크게 몰려왔다고 전한다. 여전히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이 많다는 류 교수에게 이번 연구가 폐암 환자의 진료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먼저 물었다. “일반적으로 폐암은 국제기준에 맞는 표준치료를 하게 되어 있죠. 이 표준 치료의 기준은 병기 진단으로 결정됩니다. 바로 이 병기 결정 과정에서 의문시되어왔던 미량 흉막액의 궁금중을 푼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미량 흉막액의 존재는 향후 어떤 형식이든지 치료 방향을 정하는 데 반영될 겁니다.” 현재까지는 적은 양의 미량 흉막액이 병기 결정 과정에서 발견되면, 병기 및 치료방침을 정하는데 의사들 간 의견이 분분했었다. 바로 이런 것에 대해 하나의 근거를 제시해 주었다는 데 의미가 있는 연구라는 것이다. 당장 폐암 병기에 대한 기준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병기 결정 기준에 중요한 시금석이 되리라는 것이 류 교수의 견해이다.

폐암 환자를 볼 때 미량 흉막액에 관심이 있던 류 교수다. 그랬던 열정 탓에 류 교수는 이 연구의 아날로그적인 고독한 과정에 홀로 온전히 빠질 수 있었다.

“처음엔 1,300명 정도의 환자 케이스를 보는데 최초 진단 CT를 봐야 하는 거라 쉬운 작업은 아니었어요. 필름 CT까지 보다 보니 시력까지 확 나빠질 정도로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힘든 건 혹시 팽(?)이면 어떻게 하는지가 걱정이었죠. 하하하.”

분명 진단 당시는 흉막액이 미량이어서 1기로 예상했는데 20일 만에 흉막액이 갑자기 늘어서 말기로 진단한 아주 오래전의 일을 류 교수는 기억하고 있다. 연구 과정에서 혼란이 올 때마다 ‘내 생각이 맞다’는 확신을 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미량 흉막액이 폐암에 영향을 주겠냐고 물어보면 아마 ‘그럴 수도 있다’라는 답이 나올 것이고 이런 식의 답은 환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류 교수는 말한다. 이것을 입증해 주어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류 교수가 가슴에 묻어둔 사명감이었다.

### 두 달이라는 기간 중 한 달을 고민한 이유

“논문 제출 후 두 달이 지나서 reject가 아닌 major revision을 받게 된 것은 다행이었어요. 심사위원 4명 중 1명에게 심각한 지적을 받았죠. 단 1명의 심사위원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통과 못 합니다. 소명할 기간은 두 달이었어요. 어떤 방향으로 심사위원 의견에 대하여 수용 혹은 반박할지를 정하는데 첫 한 달이 지났어요.”

두 달이라는 기간 중 한 달을 고민한 류 교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진한 이유는 의학적 데이터로 증명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 묘한 의사이팅이 발동 걸렸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폐암 환자 치료를 위한 기본이 되는 연구이기 때문이다. 힘든 수수께끼를 받아든 류 교수는 의학적 반박으로 하나하나 풀어가는 과정이 힘들지만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슴에 아프게 남은 아버지의 자리다. 류 교수는 이번 연구논문 과정에서 아버지를 저세상으로 보내드리고 아픔을 겪어야 했다. 가끔은 아버지 병상을 지키며 책을 보기도 했는데 4개월 만에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보니 이런저런 아쉬움뿐이다.

수정 논문에서 1,000명의 케이스를 더 추가하여 분석하였는데 결과는 가설을 더 명확히 뒷받침해 주었다. 그리고 재투고하였고, 칭찬의 답이 돌아왔다.

몰랐던 지식의 결과가 나왔으니 패러다임이나 기준을 변경하기 이전에 우선 검증된 연구가 또 이어져야 한다고 류 교수는 말한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류 교수의 논문이 ‘맞다’는 연구가 계속되면 세계적 기준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폐암 환자 치료에 중요한 단계를 놓는 마일스톤 하나 정도는 한국의 ‘류정선’이 했다는 말을 듣고 싶은 그다. ‘폐암 환자의 진단 치료 예후와 관련된 중요한 이 일은 누가 했던 일이야. 전 세계의 지침이 바뀌었어.’라는 평가를 받는 ‘그날’을 꿈꾼다. 살랑거리는 아지랑이가 우리 마음속에서 봄맞이하는 두근거림처럼 ‘그날’을 기다리는 한국의 류정선 교수에게 응원의 햇살을 비추어 주어야 할 때이다.

| 연중기획 | 암! 함께 이겨내요 / 암시리즈 16 폐암센터

2013년 1/2월호-자궁난소암, 3/4월호-두경부암, 5/6월호-전립선암, 7/8월호-췌담도암, 9/10월호-뇌암, 11/12월호-피부암  
2014년 1/2월호-사이버나이프센터, 3/4월호-폐암센터



# 불완전한 폐암 병기 미량흉막액의 비밀을 벗기다

## 암 병기에 따른 표준치료

전 세계적으로 현재 인류의 사망원인 질환 중 그 핵심에 자리하고 있는 질환은 폐암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폐암은 암 사망 원인질환 1위의 질환이며, 그중 비소세포 폐암은 전체 폐암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폐암 조직학적 형태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식기반은 취약하기만 하여 폐암을 극복하기 위하여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따라서 폐암의 예후가 좋지 않다 보니, 암 환자, 가족분은 획기적 치료법이 없을까 갈구하게 되고, 주변에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는 말에 귀가 얇아져, 대부분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대체요법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도 이해가 된다. 그렇지만 폐암의 진단, 치료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단 조직검사에 의하여 정확한 진단이 되면 병기를 세심히 판단하고, 병기에 따라 제시되어 있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 치료를 시행하는 것만이 치료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 될 것이다.

## 암 병기는 완성중

사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지만, 십여년 전 필자가 폐암 연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때 암 병기에 대한 국제기준을 환자에게 적용하면서 명확하지 못한 점들이 많았다. 그래서 폐암 환자분들의 병기를 알고자 할 때 어려움에 부딪치곤 하

였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폐암 병기 개정/발전을 주도하여 왔던, 지금은 고인이 되신 Mountain 교수(UCSD, La Jolla)께 이런저런 관련된 질문을 하곤 하였다. 그때 얻었던 답은 암 병기도 다른 과학기술과 똑같이 발전하는 과도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완성본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대부분 환자들은 암으로 진단된 후, 병기를 알기 위한 검사들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종료된 후 의사로부터 “병기가 몇 기 입니다”라는 설명을 듣게 된다. 그러나 의사가 아닌 사람들, 아니 암전문의가 아닌 의사들조차도 치료를 결정하는 기준점이 되는 암 병기가 틀릴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환자 개개인의 암 병기를 정확히 아는 것이 종종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암전문가만 아는 불편한 진실일 것이다.

## 폐암 병기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

### 결절, 림프절, 그리고 흉막액

다양한 어려움이 정확한 폐암 병기를 판단하는데 존재하겠지만 흔히 접하는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흉부 CT 등 영상의학 검사에서 암 덩어리 근처 또는 다른 엽에 작은 결절(들)이 있을 때 조직검사 없이 결절이 암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되는데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된다. 또한 우측 폐와 좌측 폐 사이에 종격동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서 폐암 세포들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통로 역할을 하는 많은 림프절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 일부 림프절에 암이(조용히) 침범하여 림프절 크기도 비정상적으로 커지지 않거나, PET/CT 등 검사에서도 정상소견을 보일 때, 림프절에 암이 퍼져있는지 판단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 된다. 인하대병원 폐암센터에서는 인천/부천지역 최초로 종격동에 있는 림프절에 암세포의 침범 유무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관지내시경 초음파(EBUS) 검사 장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흉막액이 있다.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늑막에 액체가 차있는 것을 흉막액(혹은 흉수)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폐암환자에서 흉막액이 발견되면, 흉막천자라는 검사를 통하여 그 액체를 뽑아 세포검사를 하여 암세포가 흉막

액에 존재(악성흉막액 이라 정의함)하는 지 여부를 판별한다. 이렇게 하여 악성 흉막액이라고 입증되면, 아무리 암 덩어리가 작아도 혹은 암이 종격동 림프절에 퍼져있지 않아도, 환자의 병기는 폐암 말기인 4병기로 분류된다. 따라서 결절, 림프절 등 다양한 요소들이 암 병기의 정확한 판단을 유보하게 만드는 원인이지만, 그중 가장 큰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 것은 흉막액이다.

## 흉막액에 대한 암 병기 관련 진료지침의 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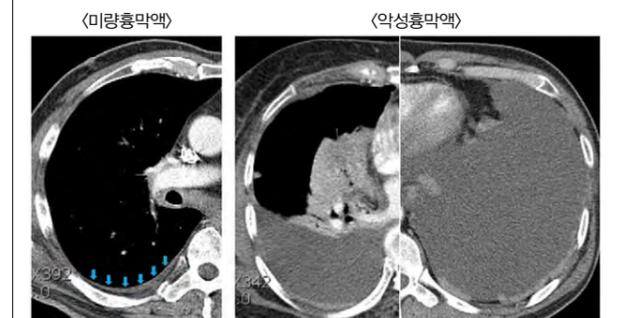
### 미량흉막액

암환자의 병기를 정확히 하고자 하는 이유는 명확한 환자 분류에 있으며, 병기에 따른 국제기준에 맞는 표준치료를 제공하는 데 있을 것이다. 현재 폐암 병기에 대한 국제기준은 악성 흉막액을 흉막액에 암세포가 존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기준을 준용하기 위해서는 흉막액이 있는 모든 환자에게 흉막천자를 해야 한다. 그러나 흉막액이 적은 경우 흉막천자를 한다면 환자는 폐에 바람이 치는 기흉과 같은 합병증의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호흡기학 진료기준에는 옆으로 누워서 촬영한 가슴 사진에서 흉막액 두께가 1cm보다 적은 미량흉막액에서는 흉막천자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그림 1). 미량흉막액을 둘러싼 두 기준은 개별적으로는 합당한 것이지만, 흉부 CT 등 검사에서 미량흉막액이 발견되었을 경우 병기결정을 위하여 악성흉막액인지 여부를

현재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식기반은 취약하기만 하여 폐암을 극복하기 위하여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폐암의 예후가 좋지 않다보니, 암 환자, 가족분들은 획기적 치료법이 없을까 갈구하게 되고, 주변에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는 말에 귀가 얇아져, 대부분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대체요법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도 이해가 된다.

(글\_ 류정선 교수 / 폐암센터 소장)

그림 1. 흉부 CT 사진 : 미량흉막액과 악성흉막액



판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흉막천자는 할 수 없는 모호성에 암전문 의사는 부딪치게 된다. 최근에 들어와 폐암 중 흉막액을 흔히 발생시키는 선암의 증가추세가 두드러지고, 과거와 달리 현재는 모든 폐암 진단에 흉부 CT를 이용하게 됨으로 미량의 흉막액을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불가능한 미량흉막액의 임상적 의미는 차치하고, 암 환자 중 얼마나 많은 환자에서 미량흉막액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기초조사조차도 없는 실정이었다.

### 연구 설계와 결과

인하대병원에서 진단, 치료받았던 비소세포 폐암 환자 2,061명을 대상으로 하여 흉막액 존재유무, 환자 특성, 진단 시 검

그림 2. 흉막액 유무에 따른 폐암환자 생존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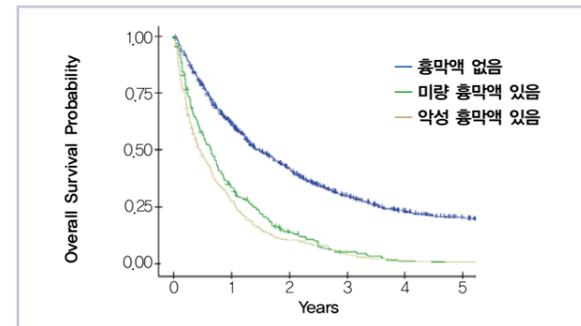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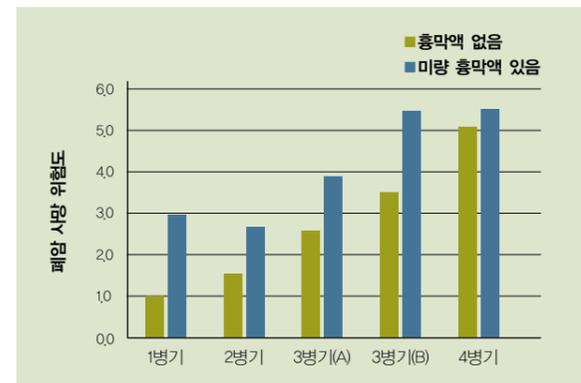


그림 3. 흉막액이 없는 1병기 폐암환자의 사망위험을 '1'로 보았을 때 미량흉막액 유무에 따른 각 병기 환자의 사망 위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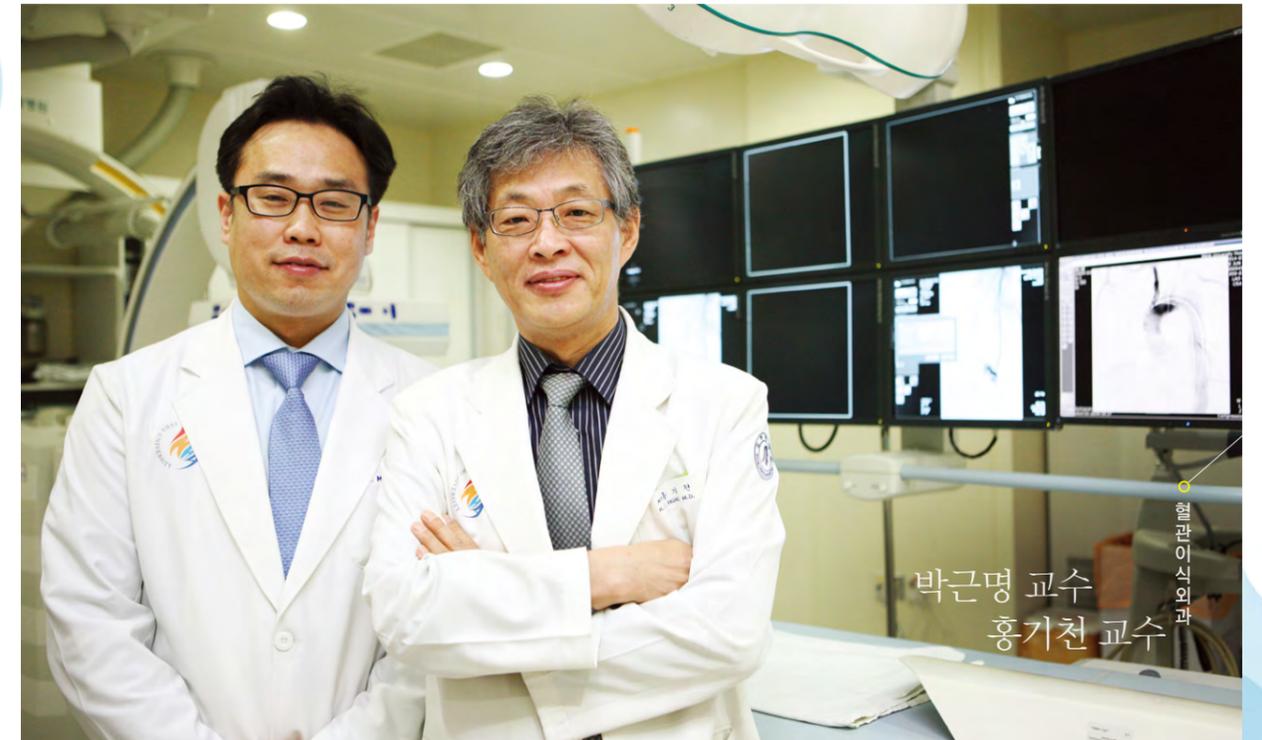
사 소견, 환자의 폐암 특성, 치료관련 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미량흉막액은 흉부 CT에서 두께 1cm 이하의 흉막액이 있어 흉막천자가 불가능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전체 대상환자를 진단 당시 흉막액이 없었던 환자, 미량흉막액이 있었던 환자와 악성흉막액 환자 이렇게 3개의 군으로 나누어서 생존기간과 관련된 수 있는 환자요인, 진단요인, 치료요인 등을 단계적으로 모두를 보정한 상태에서 환자 생존기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미량흉막액은 폐암 환자 중 13%에서 관찰되었고, 미량흉막액의 90%는 폐암에 의해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흉부 CT에서 흉막액이 전혀 없었던 폐암환자의 경우 중앙생존기간이 약 18개월이었던 반면, 미량흉막액이 관찰되었던 경우 중앙생존기간은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않은 7.7개월에 불과하였다(그림 2). 병기별로 보았을 때 초기 병기인 1병기 환자의 중앙생존기간이 약 6.5년이었던 반면, 미량흉막액이 있었던 1병기 환자는 2.3년에 불과하였고, 3병기 환자와 같은 사망 위험에 노출되고 있었다(그림 3). 이번 결과는 미량흉막액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함과 그 발생원인과 무관하게 미량흉막액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예후가 불량하여, 현재 진료지침에 준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임을 시사하였다.

### 맺음말

이번 연구는 폐암 표준치료 적용의 기준점이 되는 병기 결정 요소 중 모호성 속에 빠져있었던 미량흉막액에 대한 최초 관찰이었으며, 이 결과가 암 병기와 관련된 임상지식 발전에 마일스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NCCN 진료지침 및 세계폐암학회에서 추진할 차기 폐암병기 개정에 이번 연구결과가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문의 : 폐암 센터 ☎ 032-890-3890



박근명 교수  
홍기천 교수

## 신부전환자에게 가장 좋은 치료법은 신장이식, 이후 새로운 삶이 될 수 있어!

신장은 손상되더라도 초기 뚜렷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침묵의 장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환자가 자각할 수 있는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발견이 매우 어려운 질환입니다.

### 손상되어도 뚜렷한 증상 없는 신부전증

신장기능의 70% 이상이 손상되어도 환자가 느끼는 증상은 무기력하거나 식욕이 떨어지는 정도에 불과하고, 신장기능의 90% 가까이 손상되어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한 만성신부전에 이르러서야 두통, 구토, 어지럼증이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만성신부전으로 고생하는 환자는 신장기능을 대신하여 혈액 안에 있는 노폐물을 거르는 방법(혈액투석), 그리고 복막투석을 통해 거르는 방법(복막투석)이 있습니다. 혈액투석의 경우는 대부분 일주일에 2~3회 정도 하게 되는데 매번 투석할 때마다 적어도 3시간 이상 병원에 와서 혈액 투석기에 의존하여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 복막투석도 최근 집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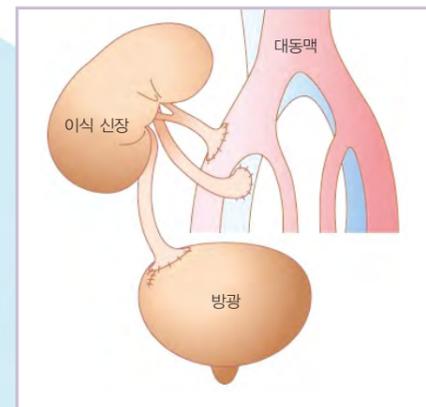
서 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복부를 관통한 관을 통하여 하루에 복막 투석액을 3~4회 교환하여야 하고 장기적으로 사용할 때 복막염이라는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신장이식은 망가진 신장의 기능을 완전히 복구하는 것으로 노폐물을 거르는 기능 이외에도 신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신장병이 걸리기 전의 정상 신장기능을 가진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신장이식을 받은 환자들이 머리는 아주 상쾌해지고 얼굴이 밝아지고 새 삶을 사는 것 같다고 한결같이 말합니다. 이렇듯 만성신부전 환자의 신장이식 후 삶의 질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사회적으

로 중요한 역할을 할 시기인 젊은 청, 장년 나이에 성공적인 신장이식은 사회생활로 복귀함은 물론, 자유로운 신체활동, 식이요법 및 시간의 제한이 없다. 또, 소아의 경우 성장 및 발육이 정상화될 수 있어 말기 신부전증의 유일한 궁극적인 치료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장이식의 걸림돌로서 신장이식 후 체내에 이식된 타인의 신장을 거부하는 기능을 억제하기 위하여 면역억제제를 계속 복용해야 한다는 점과 장기간 사용에 따른 원치 않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식 후 급성 또는 만성 거부반응을 예방 및 치료할 수 있는 완전한 약제는 없는 실정이나 새로운 면역억제제들이 개발되고 있어 그 기대가 크지만, 면역억제제는 이식환자에게는 걸림돌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부전증에 빠지게 되면 생명유지를 위해 기능상 신장을 대신할 치료방법이 필요하게 되는데 치료를 시작할 때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방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즉, 환자의 연령, 동반되는 심장질환, 당뇨, 간염 등 그 외 다른 공존하는 질환의 유무 등에 따라서 치료방침을 결정하게 됩니다. 신부전환자에게 투석이 필요할 때가 되면 수분과 음식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되고, 따라서 투석을 시작하는 가장 바람직한 시기는 요



↑ 뇌사자의 신장으로 장골동맥과 정맥을 연결한 모식도

독증의 합병증인 고혈압, 심낭염, 심한 빈혈, 신경장애 등이 발생하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이들 합병증들이 나타난 후에는 치료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2~3회 투석을 위하여 병원을 방문해야 하므로 시간 및 사회적 활동의 제약이 받게 되고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정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수가 많습니다. 이시기에 신장이식을 결정하게 되는 환자가 많게 되고 예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60세 이상 환자도 신장이식 가능

일반적으로 감염, 암, 심한 영양장애 및 치료 곤란한 전신질환이 없으면서 정상적인 요로를 가진 모든 비가역성 말기 신부전 환자는 나이에 제한 없이 최근에는 신장이식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는 60세 이상의 환자도 육체 및 정신적인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경우 적극적인 신장이식을 시행하고 있고, 암환자라고 해도 근치 수술 2년 또는 5년 이후까지도 재발의 징후가 없으면 신장이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혈액형이 틀린 환자 간의 신장이식도 혈장교환술 등을 시행한 뒤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이식은 이제부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강한 신장을 온전히 받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모든 신장이식환자는 각종 만성 합병증과 만성 신장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이고, 각 심혈관계 사망 위험인자들이 이식전과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 또한 이식 신장은 앞으로 아끼고 조심하며 정성껏 관리받아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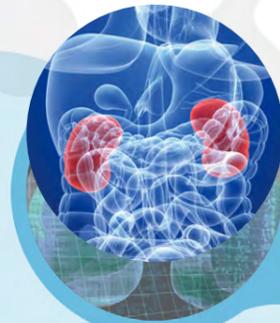
최근 이식과 관련된 제반 의술의 발달로 이식 후 1년에 이식 신장이 생존할 확률은 뇌사자 이식의 경우 50%(1975년)에서 90%(2000년)로, 생체이식은 88%에서 93%로 현저히 호전되었고, 이식 신장의 반감기도 생체이식 시 13년에서 21년으로, 뇌사자 이식은 8년에서 14년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더구나 최근 새로운 면역억제제가 새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고, 말기신부전 환자에게 신장이식의 금기사항에 적합한 신장공여지만 있다면 가장 좋은 치료방법



이 신장이식이라는 것은 현재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부전환자들에게 신장이식이 좋다는 걸 알면서도 이식을 결정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 면역억제제를 복용해야 한다는 사실, 또 그런 약들의 부작용에 대한 걱정, 그저 혼자 앓다가 죽으면 되는데 주위에 너무 난리를 치는 것이 아닌가? 과연 누가 한쪽 신장을 떼어 주겠는가? 나에게 맞는 뇌사자 기증자가 나올 수 있을까? 등등 말할 수 없는 많은 고뇌와 생각에 혼란이 올 것입니다.

#### 신장이식 후 새로운 삶으로

성공적인 신장이식을 받고 퇴원했던 환자의 밝아진 얼굴과 한발 걸을 때마다 하늘을 걷는 것처럼 머리가 맑아졌다는 환자의 말을 기억해 보면, 신부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치료법은 신장이식은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단, 앞으로의 삶을 주위의 도움 주신 분들은 위한 삶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한다면, 신장이식 이후는 새로운 삶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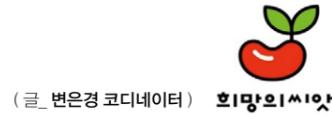
a Kidney transplantation



2년 전부터 인하대병원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립 장기이식 관리센터가 지정한 뇌사관정대상자 관리병원(HOPO, Hospital based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 으로 지정되어 뇌사자 신장이식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적출한 장기 중 최소 1개의 신장은 먼저 이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하대병원에서도 1985년 인하병원 개원 이후로 지속적 신장이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과, 신장내과, 비뇨기과, 영양과, 면역검사실, 사회복지과와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 등 이식팀을 이루어 최근까지 성공적인 신장이식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 혈관이식외과 ☎ 032-890-2250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 '장기기증 · 장기이식'



## 장기이식이란?

장기(Organ)는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실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 고형장기 7종(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소장, 췌도)과 조직 2종(골수, 각막)이 해당됩니다. 장기가 더 이상 체 기능을 하지 못해 기존의 치료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장기부전 환자를 위하여 기증자의 건강한 장기를 이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장기기증은(Organ Donation)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장기기증은 3가지 종류로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1. **뇌사 기증** : 뇌혈관질환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뇌사자(뇌 기능은 정지되었으나 심장만 움직이는 상태)의 장기를 가족 또는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기증하는 경우 → 신장, 간장, 심장, 폐장, 췌장, 췌도, 소장, 각막
- 2. **사후 기증** : 사망한 후 안구(각막)와 인체조직 기증
- 3. **생체기증(생존 시)** : 살아있는 상태에서 친족간(부부 · 직계 존비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친족간) 또는 타인 간 기증 → 간의 일부 또는 신장 한 쪽, 췌장 일부, 췌도, 소장 일부, 조혈모세포 기증

※한 사람의 기증으로 인체조직은 최대 100여 명이 수혜 가능하며, 장기는 최대 9명이 수혜가 가능합니다.

## 인하대병원신장이식안내

본원에서는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코디네이터가 등록해 드리고, 직접 등록하실 경우는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www.konos.go.kr)'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뇌사기증자를 타 병원으로 이송할 없이 한국장기이식관리센터와 연계하여 본원에서 기증 절차를 수행하여 유족의 불편함을 덜어 드리고 있습니다.

♣신장이식 등록 및 상담 : 신장이식 코디네이터 이미진 ☎ 032-890-2229

♣장기기증 상담 :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변은경 ☎ 032-890-3060



# 봄철, 꽃가루알레르기

(내·외·진료·내수 / 알레르기내과)

## 꽃가루 알레르기

꽃가루에 의해서 눈, 코 및 기관지에 발생하는 알레르기 질환으로, 19세기 이후에 많이 발생하여 처음에는 건초열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가, 원인이 꽃가루로 밝혀지면서 꽃가루병 또는 꽃가루 알레르기로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3월에서 5월 사이에 많이 날리는 자작나무, 참나무, 오리나무, 버드나무 꽃가루 등에 의한 알레르기 환자가 계속 늘고 있으며, 봄마다 증상이 반복된다. 또한, 봄에 많이 날리는 황사에 의하여 알레르기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 따라서 봄마다 감기나 기침을 달고 산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감기가 아니라 꽃가루 알레르기 가능성이 크다.

## 증상

눈이 가렵고 충혈되는 알레르기 결막염과 콧물, 재채기, 코막힘 등 심한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생길 수 있으며 꽃가루가 기관지속으로 흡입되면 천식이 나타나며, 피부에 닿으면 두드러기 또는 가려움증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비염과 결막염 증상이 가장 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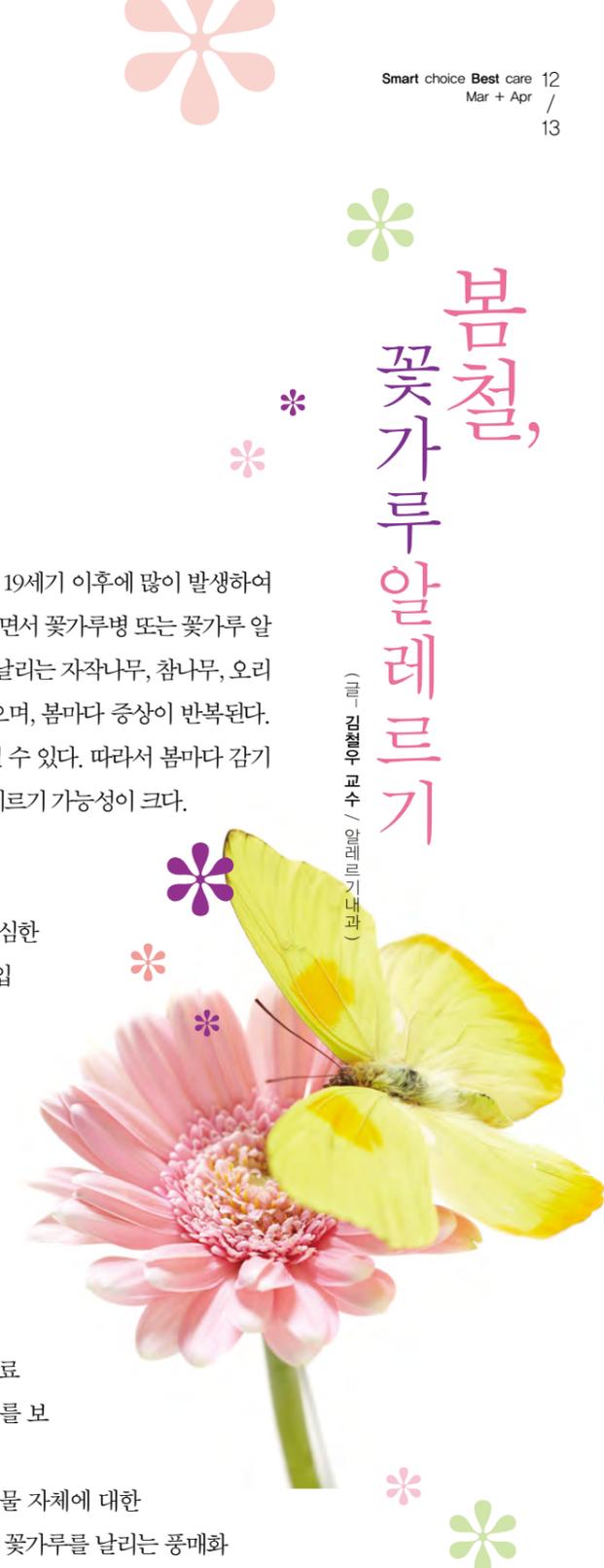
## 예방과 치료

먼저 꽃가루가 날리는 시기에는 외출 후 깨끗이 몸을 털고 씻는 것이 중요하다. 증상이 심한 경우 꽃가루가 날리는 시기 동안 약 물치료를 병행하며 증상이 나타나기 1~2주 전에 미리 약제를 사용하면 증상을 쉽게 조절할 수 있다. 증상이 심하고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원할 때는 알레르기 반응을 조절하는 일종의 체질개선 치료법인 '알레르겐 면역요법'을 시행하는데 약 80%의 환자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

꽃가루 알레르기는 공기 중에 날리는 꽃가루에 예민한 것이고 식물 자체에 대한 알레르기는 아니다. 꽃가루는 자작나무, 참나무 등과 같이 바람에 꽃가루를 날리는 풍매화에서 나오며, 벚꽃이나 장미꽃 등과 같이 곤충에 의하여 수정하는 충매화에서는 꽃가루가 날리지 않는다. 따라서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다고 꽃 자체를 피할 필요는 없으며, 꽃가루 알레르기에 대한 치료를 하면서 봄철에만 즐길 수 있는 벚꽃 구경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2014.3.28 동아일보 '굿모닝 건강칼럼'에 게재

●문의 : 알레르기내과 ☎ 032-890-2219





## 지긋지긋한 비염, 비디안신경절제술로 완치

비디안신경이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 유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이 신경을 차단한다면 비염 증상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글\_ 김영호 교수 / 이비인후과)

### 비디안신경이란?

일단 이름조차 생소한 '비디안신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몸의 신경에 대해 알아 보죠. 우리 몸의 신경은 시각, 촉각, 청각 등을 담당하는 감각신경, 몸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운동신경, 그리고 자율신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자율신경은 크게 교감 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나뉠 수 있습니다. 비디안신경이란 쉽게 말해 코안의 자율신경계, 즉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를 담당하는 신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였죠? 비디안신경 내의 부교감신경계가 흥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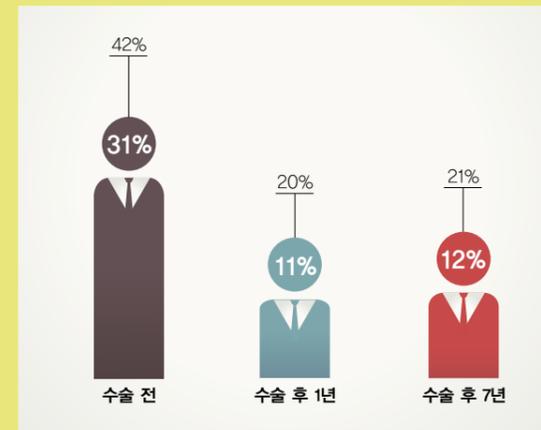
되면, 콧살(비갑개) 내의 혈관들이 확장되어 콧살이 비후되고, 콧물이 많이 나는 등의 증상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디안신경은 알레르기 비염 증상을 지배하는 신경이라고 할 수 있지요.

### 비디안신경절제술이란?

이렇듯 비디안신경이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 유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이 신경을 차단한다면 비염 증상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경을 절제하여 영구적으로 기능을 차단한다면,

한번의 수술만으로 비염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코 질환 주치의가 근무하는 인하대병원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약물 및 수술치료, 면역요법 등에도 효과가 없었던 난치성 비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디안신경절제술을 시행해 왔으며, 그 결과 6~7년 이상 장기간 추적 관찰하였을 때도 증상이 재발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 전후 알레르기 비염 증상으로 인한 환자의 증상 변화**  
수술 전에 비해 수술 후 1년, 7년 후까지도 비염 증상의 개선 효과가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본원의 연구결과, 2010년 국제학술지 게재).



### 신경을 절제한다구요? 큰 수술 아닌가요?

이전에 내시경 수술 기법이 많이 발전하지 못했던 시절에는 외부 접근법으로 신경을 찾아야 했기 때문에, 여러 가

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큰 수술이었으며, 신경을 정확히 찾을 수 없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시경으로 비디안신경을 정확히 찾을 수 있으므로 외부절개가 필요 없으며, 대부분 신경을 정확히 찾아 확실하게 절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합병증은 극히 적으면서 뛰어난 수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합병증은 없나요? 안전한 수술인가요?

비디안신경절제술은 전신 마취하에 90분 ~ 120분 이내에 시행할 수 있는 수술입니다. 수술 중 비디안신경에 근접한 동맥에서 출혈이 일어날 수 있으나 내시경적으로 지혈할 수 있습니다. 수술 중 비디안신경과 인접한 다른 신경에도 전기소작에 의해 미세한 손상이 가해지면 수술 후 뺨 부위의 감각이 다소 떨어진다든가 하는 일시적인 증상이 올 수 있으나 대개 회복됩니다. 그 외에도 안구전조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수개월 내 회복됩니다.

비디안신경절제술은 내시경 수술기법을 이용해 비교적 간단하고 큰 합병증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수술이나, 신경을 영구적으로 절단하는 수술이므로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국내에서는 코 질환 주치의가 근무하는 인하대병원에서만 비디안신경절제술을 집도하고 있습니다.

●문의 : 이비인후과 ☎ 032-890-2420

**필자의 비디안신경절제술 집도장면**  
내시경으로 수술을 진행하면서 코안의 비디안신경을 찾아 전기소작 등의 방법으로 신경을 절제하는 모습.



보면 즐겁고, 먹으면 행복 그리고 건강까지~~~

## 그에겐 ‘꽃’이 최고의 식재료 70세에도 현장을 지키는 오너 셰프로

조우현 국가대표 셰프는 식물의 기운이 맺혀 있는 결정체인 ‘꽃’ 이야말로 건강한 식재료라고 말한다.

물론 꽃 한 송이를 요리로 섭취한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다. 조 셰프는 좋은 요리란 보면 즐겁고, 먹으면 행복하고, 먹은 후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로 그의 요리 철학을 만족시켜주는 최고의 식재료가 ‘꽃’ 인 것이다.

(에디터\_ 이정희 포토그래퍼\_ 민스포토스튜디오)

처음 조 셰프가 음식에 꽃을 접목시킨 것은 ‘플로라’ 라는 레스토랑을 오픈하면서다. 어느 기자의 권유도 있긴 했지만 한자로 식당 이름에 ‘花’ 를 함께 사용하고 있던 터라 음식에 꽃을 이용하면 잘 어울리겠다는 생각을 했다. 물론 한때 외식산업체에 근무할 당시 식물에 관한 남다른 지식도 있던 그는 자신 있게 접근할 수 있었다.

“저는 베고니아가 참 좋습니다. 4계절 피는 꽃인데 새콤달콤한 맛이 에피타이저나 디저트에 잘 어울립니다. 국화나 장미도 많이 사용하죠. 장미는 튀김으로 해서 먹으면 좋아요. 껏 잎 튀김을 생각하시면 상상이 되시죠?”

처음 요리에 꽃을 올려놓으니 걷어내는 사람들이 많아 아예 많은 양의 꽃을 올렸다고 한다. 그랬더니 보는 것에서 먹는 것으로 생각을 달리 하더라. 조 셰프의 꽃피자는 얇은 도우에 여러 종류의 꽃을 말아서 먹는 건데 ‘플로라’ 의 대표 꽃요리이기도 하다.

### 요리가 가장 즐겁고 행복한 ‘요리 사랑’ 도 국가대표

지금도 후회없고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조 셰프다. 외식 경영업체만 4곳, 40여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지만 언제나 주방을 지키는 ‘오너 셰프’ 다. 오너 셰프라 더 행복한 이유는 장사꾼이 아니라 즐거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 집

에서도 아이들이 ‘아빠! 배고파’ 라고 하면 언제든 냉장고를 열고 요리하는 행복에 푹 빠진다.

“가리는 음식은 거의없고, 늘 요리에 대한 연구 때문에 간을 많이 보는데 우리나라 식습관의 제일 이슈가 나트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국물을 많이 줄이려고 합니다. 운동은 거의 매일 1시간 30분 정도 걷고 뛰고 합니다. 이 시간은 아이 디어도 많이 떠오르는 거 같아요.”

국제 요리대회에 나가는 우리나라 대표 팀은 요리뿐 아니라 허드렛일까지 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고 보니 체력은 기본



- 70세까지도 현장을 지키는 ‘오너 셰프’ 로 남고 싶다.
- 조 셰프의 ‘꽃피자’ 는 플로라의 대표 요리이다.
- 세계요리대회의 성과물

이기도 하단다. 간혹 1주일씩 날밤을 새야 했던 적도 있다.

조 셰프에게 멘토이자 영원한 돌직구(?) 스승인 최수근 교수가 있듯이 그도 테크닉보다는 비전을 제시해 주는 멘토가 되어주는 교수이고 싶다. 또 현역 셰프로 쉼 없이 명장 준비를 계획하고 있는 그는 외국처럼 3~4 백년 가는 식당을 경영하고 싶은 소망도 잊지 않고 전한다.

요리에도 월드컵이나 올림픽같은 세계적인 대회가 있다. 조 셰프가 자비를 들여서라도 국제대회에 나가는 이유는 후배들은 요리만 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 또 이탈리아 요리에 한국식 맛을 더하고 싶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는 한국식 맛을 빠뜨리지 않고 대회 때마다 접목시켜 좋은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축구의 ‘붉은악마’ 같은 응원단은 없지만 세계를 상대로 고군분투하는 국가대표 감독 조우현 셰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장 뜨거운 꿈은 70세까지 현장을 사수하는 ‘요리하는 오너 셰프’이다.

### 건강까지 배려하는 꽃요리 TIP\_

#### 보기 좋고, 향도 좋고, 맛있는 꽃요리 - 어떻게 먹을까?

먹기 위한 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식재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 농장에서 친 환경으로 재배한 것을 구매하여야 한다. 흔하고 친숙한 꽃이라고 해서 아무것이 나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철쭉은 진달래와 달리 독이 있다. 이외에도 히아신스, 수선화, 옥잠화 등도 먹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식용꽃으로 선택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 꽃요리(조우현 지음)



**장미** - 꽃 전체를 사용하거나 꽃잎을 사용한다. 스트레스 저항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우울증 낮게 해주며 공파를 강하게 하며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주고 두통을 줄여 준다. 향긋하고 매콤한 맛, 말려서 차로 마시거나 화전을 만들면 좋다.

**베고니아** - 몸이 나른할 때 먹으면 효과적. 상처 난 부위나 염증 치료에 탁월한 효과와 신맛이 있어 식초 대신 사용해도 좋다.

**팬지** - 단맛이 나며 향염과 신경안정에 도움을 준다. 샐러드, 샌드위치, 쌈에 이용할 수 있다.

**데이지** - 단맛이 있고 담백, 아삭아삭 씹는 맛이 있다. 유럽에서는 간장 질환, 기관지 질환, 변비, 상처 치료에 이용되었다고 한다.

**소국** - 차로 마시거나 부꾸미, 튀김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다.



# 햇살인 듯, 특



저기 꽃 핀다 꽃 보아라. 여기서 특 저기서 특. '저 꽃 보라' 며 말하기도 전에 꽃이 또 특 피고, 특 터진다. 그러고 보니 어느새 봄 이고 꽃이 폈다. 큰 눈 몇 번에 큰 추위 몇 번을 견뎌 맞은 봄인지. 꽃들 모두 그렇게 저릿하도록 찻던 그 겨울의 바람을 견뎌 매 화가 되고 진달래가 되고 벚꽃, 개나리가 됐다. 마치 겨우내 모아 두었던 햇살을 터트린 것처럼 눈부신 '빛의 터짐' 이다. 그런 꽃들에 도시가 기분 좋게 소란하다. 화색빛 도시에서도 봄날의 꽃은 '이길 수 없는 고혹' 인 게다.

( 글· 사진\_ 이시목 여행작가 사진협조\_ 성동구청· 안양시청 )

## '살아 있는 매화 꽃담' 을 따라, 창덕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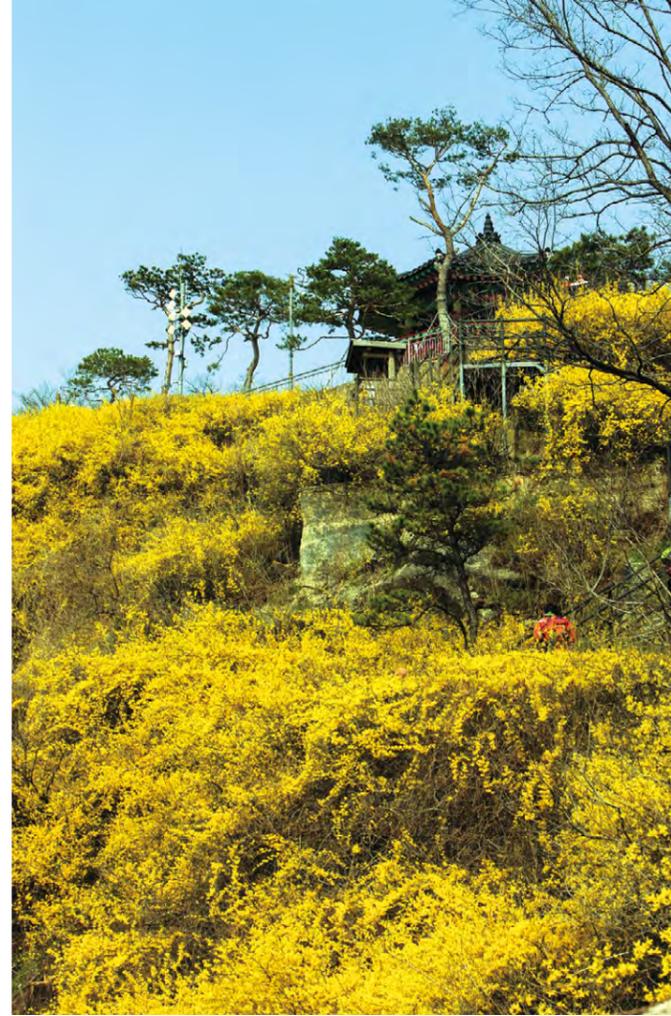
서울의 봄은 4월에 이르러 절정을 이룬다. 개나리며 벚꽃이 곳곳에서 터지고, 데이지며 팬지가 거리를 알록달록하게 수놓는다. 꽃이 피지 않은 곳이 없고, 보이지 않는 곳이 드물 정도다. 그만큼 다양한 꽃이 연이어 피는 계절이 4월이다. 그중에서도 고궁의 4월은 남다르다. 창덕궁과 창경궁의 생강나무를 필두로 경복궁 아미산의 앵두나무가 꽃을 틔우고, 덕수궁 석어당의 살구나무 꽃이 여파란듯이 또 특 터진다. 새치름하게 특 터지는 것이 모두 제 몫의 계절을 닦았다. 창덕궁은 그렇게 고운 4월의 고궁에서도 첫 손에 꼽히는 '꽃밭' 이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은 공간 배치와 건축의 유연함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 4월엔 그 아름다움에 꽃가지 더해져 장관을 이룬다. 그야말로 '울긋불긋한 꽃 대궐' 이다. 상상해 보시라. 굴뚝과 꽃담의 묵은 냄새 사이로 은은한 꽃향기가 번지는 자리. 그 중심에 매화가 있다. 섬진강가의 매화 그늘에야 비할 바 못 되는 규모지만, 서울에서라면 이 정도도 호사다. 특히 낙선재 뜰에서 만나는 매화가 곱다. 홍매화며 백매화, 청매화 30여 그루가 발을 이루고 있어 매화가 질 무렵이면, 그 꽃잎이 눈처럼 흩날린다. 그런 낙선재의 매화가 발이라면, 자시문과 승화루 앞의 매화는 담이다. 겹이 많아 그 색이 더 화려하고 고운 홍매화. 그건 말 그대로, 자연이 이룬 '살아 있는 꽃담' 이다. 술보다 꽃을 더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면, 비 내리는 날 주점 대신 '매화 피는 날 창덕궁에서 만나자' 는 약속을 해봐도 좋겠다. 꽃 사이로, 꽃그늘 사이로 친구의 웃음이 바람처럼 들고 날 테다.



\*  
→ 창덕궁의 홍매화는 왕궁과 어울려 그 경치가 더 멋스럽다.

### '샛노란 개나리 꽃 그늘' 아래, 응봉산

창덕궁이 홍매화로 붉을 때, 서울의 또 다른 곳은 노란 꽃바람 속이다. 서울 성동구 응봉동과 금호4가동에 걸쳐 있는 응봉산(해발 94m)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알다시피 응봉산은 매년 4월이면 노란 개나리가 지천을 이루는 곳이다. 그래서일까, 봄날엔 산의 모양이 매의 머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부르는 '응봉산' 이란 이름 대신, '개나리 산' 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불린다. 그만큼 봄날의 응봉산은 샛노란 개나리 밭이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응봉산을 보았지만, 정작 그 꽃밭 속에 서보지는 못했다. 지하철에서 혹은 강변북로 위에서 본 것이 대부분인 까닭이다. 올봄엔 반드시, 노랑게 터져 별처럼 내려앉은 그 꽃밭 속에 서볼 일이다. 산자락을 가득 매운 개나리가 20여만 그루에 이르니, 누구라도 노란 꽃무더기 속에 꼭 파묻힐 수 있다. 이뿐이 아니다.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조망도 압권이다. 한강이 발아래로 펼쳐지고, 동부간선도로와 강변북로·올림픽대로가 손에 잡힐 듯 가까우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시계가 좋은 날엔 용마산이며 남산, 북한산도 시야로 든다. 해가 진후, 정상 팔각정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야경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매력 포인트. 붉거나 노란 불빛들이 한강을 적시는 풍경이 놀랍도록 곱다. 그래서 응봉산은 작지만 크고 소박하지만 화려하다.



### 서울 윤중로보다 한적한 꽃길, 안양천

도시에서 벚꽃은 봄꽃 중 단연 '갑' 이다. 서울의 윤중로부터 남산, 위키힐길(아차산생태공원 ~ 위키힐호텔 뒤쪽)까지 화려한 벚꽃 터널이다. 하지만 서울 중심가에 있는 벚꽃길치고 북적이지 않는 곳은 드물다. 꽃구경보다는 사람 구경하기 십상. 이럴 땐 서울 외곽 도시의 벚꽃 명소로 눈길을 돌려보자. 구리의 장자호수공원과 안양천 벚꽃길



이 추천할 만하다. 장자호수공원에는 수령이 20년 이상 된 200여 그루의 왕벚꽃나무가 3.6km의 산책로를 따라 자란다. 벚꽃이 질 무렵이면 아예 하얀 벚꽃잎이 호수 위로 눈처럼 흩날려 장관을 이룬다. 장자호수공원의 벚꽃길에 비해 안양천의 벚꽃길은 윤중로와 그 풍경이 많이 닮았다. 금천구 광명대교와 철산대교 사이 1.5km 구간과 안양시 석수초등학교 ~ 충훈2교 ~ 삼영운수 차고지 1.2km 구간 벚꽃길이 돋보인다. 금천구 구간은 꽃비를 맞으며 자전거를 타기 좋은 곳으로, 자전거는 '금천구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에서 무료 대여한다. 안양시 구간은 흐르는 시내를 따라 산

책하기 좋은 길이다. 팝콘 튀기듯 툭툭 터진 벚꽃 터널 아래를 서울 중심가의 어떤 벚꽃길보다 한적하게 거닐 수 있다. 충훈2교 근처 안양천둔치가 벚꽃축제장. 다리 아래로 안양천을 수놓은 예쁜 벚꽃길이 길게 이어진다. 야간 조망아래서는 더 운치 있다.

### 쉬기 좋은 진분홍 진달래꽃밭, 원미산

부천의 봄날도 꽃밭이긴 마찬가지다. 그중에서도 4월은 눈부시다. 원미산의 진달래꽃을 시작으로 도당산의 벚꽃, 성주산과 춘덕산의 복숭아꽃이 잇따라 만개하니 이만한 도시 꽃밭도 드물다. 개인적인 애기를 좀 하자면, 부천에서 12년을 살았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모든 꽃밭을 비롯해 부천의 곳곳을 쏘다녔다. 이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이 바로 원미산(해발 167m)이다. 도심에서 진달래로 가득 찬 산, 그것도 수도권 도시에 있는 진달래꽃밭으로는 최대 규모의 산을 만난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웠던 것. 원미산의 진달래꽃밭은 특히 양귀자의 단편소설 <한계령>에도 등장할 만큼 그 자태가 곱다. 상상해 보시라. 부천 도시에 있는 야트막한 야산 1만 5,000m<sup>2</sup> 지대에 가득 찬 4만여 그루의 진달래를. 더욱이 틈조차 찾기 힘들만큼 뻘뻘 산에는 그야말로 '진분홍 꽃밭' 이 났다. 그래서일까, 햇살 좋은 어느 날 누군가는 그 고운 진달래꽃 그늘에 앉아 책을 읽고, 도시락을 먹는다. 고양이 하품하듯 나른한 봄날엔 아예 그 그늘에 돛자리를 깔고 앉아 낮잠에 취하기도 한다. 벚꽃에 비해 개화 기간이 길어 한 달 가까이 꽃을 감상할 수 있는 것도 장점. 아이들과 함께라면 원미산 안에 있는 김소월의 <진달래꽃> 시비와 양귀자 작가의 기념비에서 기념촬영을 해도 좋겠다.

#### \*

- | 강변북로 쪽에서 바라본 응봉산. 봄이면 개나리고 산 전체가 샛노랄다.
- ← 서울 윤중로에 비해 한가롭게 벚꽃길을 거닐 수 있는 안양천 벚꽃길
- | 부천 원미산에 올라서면 진분홍 진달래꽃밭 뒤로 부천 시내가 보인다.



#### Travel TIP\_

**창덕궁**  
지하철 1, 3, 5호선 종로3가역 6번 출구에서는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이고, 지하철 3호선 안국역 3번 출구에서는 도보로 5분 거리다. 매화가 꽃눈을 튀우는 4월 초순이나 중순경이 가장 아름다운데, 날씨에 따라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다. 자세한 개화 예상 시기는 창덕궁 홈페이지(<http://www.cdg.go.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2-762-9513)로 문의하면 된다.

**응봉산**  
지하철 중앙선 응봉역에서 하차한 다음 1번 출구로 나와, 옥수역 방향으로 10분 정도를 걸어가면 된다. 개나리꽃은 4월 초순에서 중순 사이에 만개하며, 성동구청에서 여는 '응봉산 개나리축제'는 4월 4일 하루 동안 열린다. 좀 더 자세한 축제 관련 정보는 성동구청 홈페이지(<http://sd.go.kr>)를 참고하거나 성동구청 문화체육과(02-2286-5203)로 문의하면 된다.

**안양천**  
안양충훈벚꽃축제가 열리는 안양천 둔치는 지하철 1호선 광명역 7번 출구로 나와 3~1번 버스 탑승 후 충훈부 입구·충훈2교 정류장에서 하차하면 된다. 안양천 벚꽃은 4월 중순 만개하며, '안양충훈벚꽃축제'는 벚꽃이 피는 시기에 맞춰 열린다. 좀 더 자세한 축제 관련 정보는 안양시청 홈페이지(<http://www.anyang.go.kr>)를 참고하거나 담당 부서(031-8045-2044)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 금천구청에서도 안양천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 '금천하모니벚꽃축제'를 연다. 금천구청 문화체육과(02-2627-2410)로 문의.

**원미산**  
지하철 7호선 부천종합운동장역 2번 출구로 나와 도보 5분 거리. 종합운동장 내에 활박물관, 유림자기박물관, 수석박물관, 교육박물관 등 다양한 테마박물관이 많아 함께 둘러보기 좋다. '원미산 진달래축제'는 4월 12일에서 13일까지 열린다.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청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화(032-625-5762~4)로도 문의 가능.

# 오색 빛깔로 나른한 봄 탈출!

(에디터\_임현숙)

의사들은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하루에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으로 여러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흔히 먹는 채소와 과일에는 피토케미컬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다. 이는 식물을 뜻하는 'phyto'와 화학물질을 뜻하는 'chemical'의 합성어로 식물이 강한 햇빛과 해충, 외부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다. 이것이 인체에 들어와 몸에 해로운 활성 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 효과와 면역력을 높여 우리 몸에 유익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섭취하는 채소, 과일의 색깔마다 들어있는 피토케미컬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효과도 다양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선 빨간색, 주황·노란색, 녹색, 보라·검은색, 흰색 등 다섯 색으로 컬러푸드를 구분하여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나른해진 봄날 여러 색깔의 채소, 과일의 섭취로 내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보는 것은 어떨지.

## Red

● 토마토, 수박, 고추, 비트 등 빨간색 채소와 과일에는 라이코펜, 엘라그라산이 들어있어 항산화 작용과 항암, 면역력 강화 효과가 있다. 라이코펜은 비타민 E의 100배, 카로틴의 2배가 넘는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고 특히 토마토는 전립선암의 위험률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파프리카, 빨간 피망 등에 풍부한 캡산틴은 강한 항산화력을 지닌 색소 성분이다. 항산화 능력은 라이코펜과 같거나 혹은 그 이상이며 암이나 동맥경화 예방 효능도 있다. 기름을 사용해 요리해야 가장 효과가 크며 설탕보다는 소금을 사용해 영양소 파괴를 줄일 수 있고 열에 약한 비타민, 무기질이 많이 들어있어 항산화 효과를 위해선 날 것으로 먹어야 한다.



## Orange, Yellow

● 당근, 파프리카, 호박에는 알파카로틴, 베타카로틴, 루테인 등의 성분이 있으며 이는 심혈관계, 눈과 세포 건강, 피부 개선에 특히 영향을 주는 영양소이다. 특히 껍질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껍질 채 먹는 것이 가장 좋다. 단호박은 프로비타민 A의 일종인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E를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몸을 따뜻하게 하며 식이섬유도 풍부해 변비 개선에도 좋다. 당근 역시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 구강암, 인후암, 후두암, 식도암, 위암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오렌지, 레몬, 귤 등 감귤류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면서도 비타민 C의 흡수를 돕고 혈관 벽을 강화시키는 헤스페리딘 성분을 함유해 콜레스테롤 조절과 동맥경화 예방 효과가 있다. 베타카로틴은 날것으로 먹는 것보다 기름으로 조리할 때 60~70% 정도로 흡수율이 높아진다. 하지만 비타민 C를 파괴하는 아스코르비나아제가 들어있어 비타민 C 함유식품과 함께 조리하지 않고 구연산이 든 식초나, 사과를 넣으면 비타민 C 파괴를 막을 수 있다.



## Green

● 시금치, 피망, 상추, 부추, 브로콜리, 케일, 완두콩, 썩갯 등 녹색 채소는 세포 손상을 막고 눈, 뼈, 혈액 건강에 도움을 준다. 녹색 채소에 많은 클로로필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작용을 하고 체내의 유해물질을 흡착해서 체외로 배출하는 디톡스 역할을 한다. 그래서 술, 담배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 영양소이다. 클로로필은 지나치게 가열하면 색깔이 변하고 효과가 약해지므로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재빨리 찬물에 식혀 요리하고 사브사브나 짬 요리에 넣어 먹으면 클로로필의 변화를 막을 수 있다. 특히 썩갯에는 클로로필과 함께 미네랄, 칼륨, 철분이 풍부해 빈혈과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



## Purple

● 블루베리, 검은콩, 가지, 콜라비 등에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심장 질환과 뇌졸중 위험을 감소시키고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준다. 눈의 피로 해소와 백내장 예방에 도움이 된다. 또한 간 기능을 향상시키고 고혈압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검은콩에는 안토시아닌과 함께 대두에 함유돼 있는 영양소인 이소플라본이 풍부하다. 이소플라본은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여성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안토시아닌은 물에 약해 오래 담가두면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므로 살짝 헹구는 게 좋고 날것으로 먹는 게 가장 좋으며 살짝 데치거나 찐다. 특히 가지 속의 비타민 E와 리놀렌산은 들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몸에 흡수가 잘된다. 다른 컬러들과 달리 퍼플 푸드는 식욕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특히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 White

● 마늘, 양파, 대파, 배추, 컬리플라워 등의 흰색 채소에는 식욕을 돋우고 요리의 감칠맛을 내주는 매운맛 성분인 알리신이 있어 양념 재료로 주로 사용된다. 알리신은 비타민 B1을 함유한 식품과 함께 먹으면 알리티아민으로 변해 탄수화물을 분해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피로 해소에 도움을 준다. 따라서 양파, 마늘, 대파 등 매운맛이 들어있는 채소는 비타민 B1이 있는 돼지고기나 장어와 먹으면 가장 좋다. 또한 알리신은 항균 효과, 혈액 속 지방을 줄여줘 피를 맑게 해주는 작용도 한다. 무, 양배추, 새싹채소를 날로 먹으면 살짝 매운맛이 나는데 이 성분이 이소티오시아네이트다. 이소티오시아네이트는 소화액의 분비를 높여주고 대장균 등에 대해 살균 작용을 한다. 특히 이소티오시아네이트가 풍부한 무는 노화 방지와 항암 작용을 한다. 소염 작용도 해 구내염이나 잇몸 출혈이 있을 때 무를 갈아 즙을 내 마시면 효과적이라고 한다. 흰색 채소는 열에 강하고 기름과 함께 볶았을 때 몸속에 흡수가 잘된다.



# Doctor to Doctor HOT-LINE

## 1년 365일 24시간 언제나 응급환자의 전원, 인하대병원 교수와 직통!!

인하대병원(병원장 김영모)은 지난 2월 10일 응급환자 전원을 바로 이어주는 대학병원과 병의원 간의 '교수직통 HOT-LINE' 개통식을 했습니다. 응급의료정보센터 1339가 폐지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은 상황에서 대세에 발맞춘 이번 인하대병원의 교수직통 핫라인 개설은 신속한 의사 결정이 가능해져 응급환자 생존을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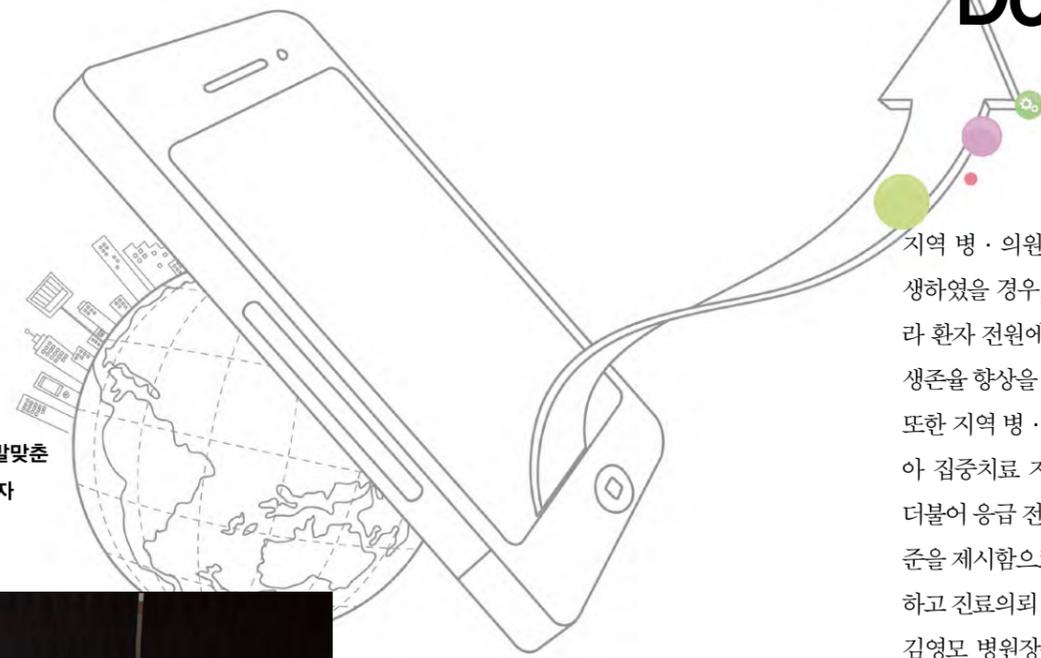


지역사회 협력병원 의료진과 인하대병원 의료진 간의 '교수직통 HOT-LINE'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현재는 권역심뇌혈관 센터 및 신생아집중치료 치료센터를 포함한 13개 진료과 30여 명의 교수가 참여하였으며 1년 365일, 24시간 응급환자의 전원이 필요한 경우 협력병원 의료진과 긴밀한 응급 전원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지역 병·의원  
의료진

응급환자 발생 / 전원 문의  
← 응급 전원 즉시 Confirm / 환자 이송

인하대병원 교수  
(13개 진료과/30명)



지역 병·의원에서 상급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하대병원 교수진과 직접 전화 연결함에 따라 환자 전원 관련 신속한 의사 결정이 가능해져 응급환자 생존을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병·의원간 신뢰 구축을 강화하고, 국가지정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및 국가지정 심뇌혈관질환 의료진과 더불어 응급 전원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진료의뢰시스템의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 의료기관의 역할을 확고히 하고 진료의뢰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김영모 병원장은 "인하대병원은 심뇌혈관질환 등 응급의료에 강한 지역 대표 의료기관으로 이번 교수직통 HOT-LINE 구축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응급의료수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지정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개소로 최신 의료장비 보강, 신생아 전문의료진 등 진료 인력충원으로 한층 더 체계적인 진료가 가능해져 "인천 중심병원인 인하대병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첨단 미숙아 집중치료센터를 구축하여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인하대병원은 인천 유일의 '권역심뇌혈관질환 센터' 를 운영하며, 심뇌혈관질환의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역의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물론 응급질환 및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의뢰시스템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 순번 | 진료과    | 교수  | 전문 분야                |
|----|--------|-----|----------------------|
| 1  | 소아청소년과 | 전용훈 | 신생아                  |
| 2  | 산부인과   | 최수란 | 산과                   |
| 3  |        | 황성욱 | 부인종양학                |
| 4  | 심장내과   | 우성일 | 심혈관중재시술              |
| 5  |        | 박상돈 |                      |
| 6  | 신경외과   | 박현선 | 모야모야, 뇌혈관수술, 사이버나이프  |
| 7  |        | 현동근 | 뇌혈관중재시술, 뇌혈관수술, 머리외상 |
| 8  |        | 심유식 |                      |
| 9  |        | 오세양 |                      |
| 10 | 신경과    | 나정호 | 뇌졸중, 뇌혈관질환           |
| 11 |        | 박희권 |                      |
| 12 |        | 윤혜원 |                      |
| 13 | 혈관외과   | 홍기천 | 혈관질환, 대동맥질환          |
| 14 |        | 김정택 |                      |
| 15 |        | 박근명 |                      |

| 순번 | 진료과         | 교수  | 전문 분야          |
|----|-------------|-----|----------------|
| 16 | 소아외과        | 최윤미 | 소아외과           |
| 17 | 호흡기내과       | 이홍렬 | 호흡기질환          |
| 18 | 흉부외과        | 윤용한 | 식도외상, 식도질환     |
| 19 | 소화기내과       | 신용운 | 위장관질환          |
| 20 |             | 권계숙 |                |
| 21 |             | 방병욱 |                |
| 22 |             | 이돈행 |                |
| 23 | 간암, 간경변, 간염 | 정 석 |                |
| 24 |             | 이진우 |                |
| 25 |             | 진영주 |                |
| 26 | 이비인후과       | 김영호 | 비과             |
| 27 |             | 최정석 | 두경부            |
| 28 |             | 김민범 | 이과             |
| 29 | 정형외과        | 권대규 | 외상, 종양, 소아정형   |
| 30 | 혈액종양내과      | 김철수 | 종양학, 혈액학, 골수이식 |

## 나은병원

좋은 동반자인 인하대병원의 핫라인으로 환자 생명 살려  
**‘쉽’ 없는 병원혁신, 언제나 진행 중!!!**

개원 20주년을 맞은 나은병원은 2008년도 인하대병원과 모자병원을 체결하여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간 효율적인 의료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나은병원은 25개 진료과, 11개 특수센터에 70여 명의 전문 의료진이 종사하고 있고 응급실도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또한, 2013년 심혈관 센터를 오픈한 나은병원은 올해 100병상 증축을 계획하고 있다.

### 환자와 소통하는 진료 서비스

강 부원장은 나은병원에 몸담기 시작하면서 ‘지역에 발붙이는 병원, 지역에 도움이 되는 병원’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해피콜 제도를 도입했다. 나은병원의 해피콜은 내원 환자, 입 퇴원 환자에게 직접 전화해서 불만족 부분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물론 즉시 반영 가능한 문제는 바로 시정하는 등 4년간 매주 수요일마다 이 과정을 거친 나은병원은 이제 소통하는 진료 서비스로 환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  
- 의사는 병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강남구 부원장  
! 나은병원의 직원은 소통하는 진료 서비스를 지향한다.

### 혼수상태의 20대 여자환자, 핫라인 시스템으로 생명 살려

“인천지역에서는 아마 최초로 인하대병원이 교수 직통 핫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니, 의료장비 등으로 커버 안 되는 응급환자를 신속히 이송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특히 제가 응급의학과이고 보니 반가운 시스템이죠.”

교수직통 핫라인으로 환자를 의뢰하기 전에는 ‘응급실 - 인턴 - 해당과 - 레지던트와 통화하고 난 후 전원이 이뤄지기까지 30분 ~ 1시간이 걸릴 때도 간혹 있다. 응급환자를 보는 강 부원장 입장에서 환자를 위한 신속한 치료가 이뤄지니 아주 반가운 일이다.

강 부원장은 직접 운전을 하고 인하대병원 핫라인 시스템을 이용했던 기억을 더듬는다. 교통사고로 뇌출혈이 의심되는 혼수상태의 20대 여자환자가 응급실로 왔으나, 인하대병원으로 바로 이송되어 신속한 수술을 마치고 생명을 건진 일이었다. 형식적인 절차를 간소화한 핫라인 시스템과 더불어 대학병원으로서 지역협력 병원에 대해 존중해 주는 긍정 평가도 빼놓지 않는다.

그리고 인천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병원으로 진정한 환자중심의 시스템으로 의료시장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인하대병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는 강 부원장이다.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지역병원으로 ‘나은병원’을 성장시키고 싶은 소망을 안고 있는 강 부원장이다.

응급의학과 의사인 그는 지금도 응급실에 있으면 병원 전체의 시스템이 한눈에 들어온다. 아마도 신은 그에게 ‘지도자마인드를 겸비한 의사’라는 두 가지 달란트를 주신 모양이다. 의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보았을법한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다 쓰러지는 일’, 이 또한 강 부원장에게 낯선 로망은 아니다. 그가 있는 ‘나은병원’의 열정과 사랑은 언제나 지침이 없으리라. ●인천시 서구 원적로 23 ☎ 1661-0099

## 더 편리하고 똑똑한 진료예약시스템 “내 손안에 쏙”

### 인하대병원 모바일 홈페이지 오픈

3월 17일 모바일 사용 고객의 요구 충족을 위하여 최적화된 홈페이지를 오픈 하였습니다.

#### 주목할만한 주요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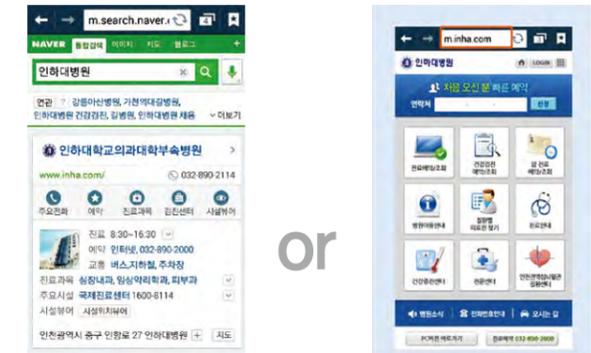
##### “처음 오신 분 빠른 예약”

인하대병원에 처음으로 진료받으시는 분을 위하여 회원 로그인 없이 진료예약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전화번호를 남기시면 전문상담원이 정확하고 빠른 예약을 도와 드립니다.



#### 모바일에서 접속방법

- ▶ 포털 검색 : ‘인하대병원’ 검색 → www.inha.com을 클릭하면 연결.
- ▶ 주소창에 ‘m.inha.com’을 입력하면 연결됨.



m o b i l e h o m p a g e

### 인하대병원 모바일 홈페이지의 장점

- 처음 오신 분 빠른 예약 시스템
- 재진 환자 간편 예약 시스템
- 한눈에 들어오는 각종 정보 조회



모바일 홈페이지 QR코드 스캔

# Change the INHA

환자안전은 세계적인 이슈사항이며, 인하대병원이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입니다.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국제의료기관인증(JCI인증) 획득으로 체계적인

환자 안전문화 정착을 실천하는 인하대병원 교직원들의 의지를 'Change the INHA' 시리즈 세 번째로

인하대병원의 특별한 Time Out - 수술 과정 안전 절차를 소개합니다.

(글\_ 신정애 / CS | Q팀)



환자안전을 위한 황금시간(Golden Time)

## 인하대병원의 특별한 Time Out - 수술 과정 안전 절차

\* 수술을 위해 입원을 해야 하는 이수술 씨 그의 고민은?

수술을 받는다는 것은 인생일대의 큰 이벤트로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이수술 씨는 혹시나 수술받다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엉뚱한 곳을 수술하게 되지는 않을까? 불안하고 걱정이 되어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 Solution !!  
잠깐! Time Out!!

걱정 마세요! 인하대병원이라면 안심하고 수술받으셔도 됩니다. 인하대병원은 수술과정 안전 절차를 수립하여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환자확인 및 수술부위 표지 및 수술과 관련된 장비와 기구까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Time Out 시행으로 안전하게 수술받으실 수 있습니다.

\* Speak Up !!!  
당신의 상태를 말해 주세요

수술을 하시는 경우 내가 어느 부위 수술을 받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의사나 간호사가 확인 시 정확하게 답변해주셔야 합니다. 귀하에게 반복적으로 성함을 묻는다면 귀찮은 것이 아니라 정확한 환자확인을 위한 꼭 필요한 절차임을 기억하고 번거롭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원 시에는 환자정보(등록번호, 성명)가 기재된 환자 팔찌는 반드시 착용하고 계셔야 합니다.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 묻고 답하여 커뮤니케이션 하는 바로 그 순간이 안전한 진료의 황금 시간입니다. 인하대병원은 JCI 인증과 국제의료기관인증 획득으로 이룬 안전한 진료시스템 가동으로 모든 환자분이 신뢰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 환자확인 실천절차

국제의료기관(JCI)인증으로 구축한 안전한 시스템 실천의 핵심은 국제 환자 안전 목표 준수로 그 첫 번째 안전목표는 환자확인입니다. 전 세계 의료기관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환자안전사고 1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도출한 예방 전략이 바로 국제 환자안전 목표(IPSG : International Patient Safety Goal)이므로, 정확한 환자에게 정확한 치료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환자확인을 해야 합니다.

**환자확인이 필요한 경우** : 투약 시, 수술 시, 혈액 채취 시, 임상결과를 위한 검체 채취 시, 치료 및 시술 시

**환자확인 방법** : 환자확인 방법으로 본원은 환자분의 이름과 등록번호의 2가지 지표로 확인하며, 반드시 개방형 질문으로 직접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어서 확인합니다.

입원환자인 경우 환자정보가 기재된 팔찌를 착용하므로, 팔찌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입원환자 팔찌 착용  
→ TIME OUT 게시판 - 확인지 부착



### 수술과정 안전절차 - Time Out 준수

틀린 수술부위, 틀린 수술, 틀린 환자 수술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큰 문제입니다. 이는 수술팀의 비효과적이고 부적절한 의사소통, 수술부위 표지 과정에서 환자참여 부족, 수술부위 확인 절차 부재의 결과로,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하대병원에서는 checklist를 개발하여 단계별로 정확하고 꼼꼼하게 확인하며, 수술 직전에는 타임아웃이라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Time Out이란?** : 수술실 내에서 의료진이 환자식별, 수술부위와 방법, 환자의 모든 기록, 혈액 검사 등의 진단검사와 영상검사 결과 수술 장비와 기구가 잘 준비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수술실 내 최소 3명의 의료진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모두 타임아웃을 외친 후에 수술은 시작됩니다. Time out은 환자나 수술 부위가 뒤바뀌는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것으로, 타임아웃 과정 중 사소한 착오라도 발

생하면 수술은 즉시 중단되고 오류를 수정한 후 가장 빠른 수술 시간을 다시 잡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CI)인증을 획득한 병원에서는 타임아웃 제도는 수술 시마다 시행되므로 인하대병원에서 수술과정 안전절차는 세계적인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수술실 내 Time Out 시행  
! 수술부위 표지

**수술과정 안전 절차는?** : 타임아웃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합니다.

- 먼저 수술 전에 수술부위 표지를 시행합니다.
- 수술부위 표지는 수술 전에 환자 참여 하에 좌우 복수구조(손가락, 발가락, 복수 병변 등) 또는 복수 레벨(척추)에 대한 모든 수술에 표시됩니다.

- 환자분이 입원한 병실에서 수술실로 가기 전에는 수술 전 환자 확인표라는 Checklist를 통해 환자의 수술 관련 정보가 정확인지 확인합니다.
- 수술실에 도착해서는 수술 방 입실 전에 수술실 간호사가 환자의 수술 관련 정보를 확인합니다.
- 수술대로 환자를 옮기기 전에 수술참여 의사의 주관으로 마취의, 수술실 간호사와 함께 환자의 수술관련 정보를 확인합니다.
- 수술대에 환자를 옮긴 후 수술부위 절개 직전에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진이 타임아웃을 시행하여 예정 수술명과 의무기록, 영상검사와 진단 검사결과, 수술 장비 등을 대조하는 절차를 시행합니다.

멀리 토론토에서 감사의 편지를 받은 보호자 없는 병동 의료진



## 토론토대학교 프린세스 마가렛 암센터 김연근 중앙 간호사가 환자 보호자로 지낸 10일 캐나다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인하대병원에 감사드립니다~**

### 인하대 병원장님께.

저는 캐나다 온타리오 토론토대학교 프린세스 마가렛 암센터에서 근무하는 김연근 중앙 전문 간호사입니다. 저의 어머니가 11병동( 보호자없는 병동)에 2013년 10월 28일부터 10일간 수술 후 입원하여 병원에 제가 보호자로 있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엄마와 같이 있으면서 느낀 많은 놀라움을 전하려 합니다.

JCI인증 병원답게 입원부터 퇴원까지의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선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입원 시 간호사의 설명, 의사의 수술, 마취 등의 설명, 그리고 수술 후에 담당집도의 최선근 교수님의 설명이 순환적으로 되었으며, 수술 후 보호자 없는 병동답게 엄마를 돌봐주는 간호사들과 간호조무사 손길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수술 후 아파하는 환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관찰하고 간호하고 치료하는 의료진들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병동 전체가 쾌적하며 청소요원 아줌마의 지속적인 청소에도 놀랐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저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의 관찰이었기에 제3자의 관찰이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인하대병원이 선진화된 것을 보게 되었으며, 토론토에 돌아와서도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최선근 외과 교수님, 그외 여러 외과 선생님, 11동 합영주 수간호사 선생님 이하 모든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멀리서도 신뢰할 수 있는 인하대병원에 감사드립니다.

김연근 (Katie Kim, RN,MN,CON)

Nov 18th 2013, Katie Kim



## 세이브더칠드런 신생아 살리기 모자 뜨기와 함께한 **인하대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 간호사들의 따뜻한 겨울나기**

(글\_ 정희숙 / 신생아집중치료실 수간호사)

### Q. 신생아 살리기 모자 뜨기 캠페인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_ 신생아 살리기 모자 뜨기 캠페인은 신생아들을 위해 모자를 직접 뜨서 아프리카 잠비아, 에티오피아, 아시아 타지키스탄 등 체온조절과 보온이 필요한 28일 미만의 신생아들에게 전달하는 참여형 캠페인입니다. 매년 태어나는 날 사망하는 신생아는 전 세계 105만 명, 한 달 안에 목숨을 잃는 아기는 295만 명이라고 합니다. 저체중이나 영양부족으로 면역성이 떨어지는 신생아, 조산아들은 캥거루 케어(KANGAROO CARE) 방식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신생아를 안고 털모자와 포대기로 감싼 후, 아기를 안고 있으면 아기는 따뜻한 체온과 엄마의 심장박동 소리에 맞춰 호흡하며, 마치 인큐베이터에 있는 듯 생명의 힘을 키워가는 것이지요. 신생아들에게 털모자는 체온을 약 2도 정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저체온이나 감기, 폐렴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좋은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신생아 살리기 모자 뜨기 캠페인 시작 후 지난 6년 동안 794,920개의 모자와 66억 원의 후원금이 전달되어 영유아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모자 뜨기 키트 구입비와 후원금으로 거리가 멀어 의료혜택을 받지 못했던 아기들을 위한 보건소를 짓고, 오염된 물 때문에 설사로 힘들어하는 아기들에게 우물을, 그리고 백신 및 폐렴 예방 항생제 등을 모자와 함께 선물했고, 이번에는 잠비아에 모자보호소를 짓고, 아동 보건서비스, 신생아와 산모 검진, 백신 접종 및 질병 예방교육을 제공해 영유아 사망률을 감소시킬 계획입니다.

### Q.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_ 세이브더칠드런 신생아

살리기 모자 뜨기 캠페인 홍보 영상을 접하고 우리나라와 달리 충분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힘없이 꺼져가는 생명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직접 가서 질 높은 의료와 간호를 제공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기에 간접적으로나마 또 하나의 간호를 실현하는 방법이 될 것 같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신생아실 간호사로 신생아들에게 체온유지가 얼마나 중요하지 잘 알고 있기에 더욱 의미 있는 활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Q.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_ 우리나라가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하게 되었고, 모자가 전달되는 나라들도 하루빨리 성장해서 더 이상 허무하게 생명을 잃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모자를 뒀습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세계 어딘가의 귀여운 아기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전하고, 내가 뜬 모자를 쓰고 있을 아기들을 상상해보며 즐겁고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자를 받은 신생아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 마음껏 뛰어놀며 언젠가 자신들의 나라를 희망차게 이끌어 가는 훌륭한 인재가 되길 저희 신생아 집중치료실 간호사 모두 간절히 소망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세요. \_ 세이브더칠드런 신생아 살리기 모자 뜨기는 매해 겨울 시행하는 캠페인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모자 뜨기 방법도 동영상과 설명서에 자세히 나와 있어서 어렵게 뜰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참여 시에는 자원봉사 5시간도 인정해준다면 내년에는 이 의미 있는 일에 함께 참여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 2014 CS슬로건 선포식

## 2014년 고객의 마음을 두드리는 인하인의 따뜻한 손길

인하대병원에서는 2014 CS 슬로건 선포식을 통해 환자중심의 감동 의료서비스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글\_유미애 / CS | 이팀)



### “시작은 친절로 마무리는 감동으로”

요즘 어느 기업이나 고객에게 친절한 서비스는 기본이며 마음을 움직여 감동을 주지 않는다면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 병원 또한 예외는 아니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고객에게 어떻게 하면 높은 의료 서비스와 고객 만족을 함께 줄 것인가는 의료계의 숙제이다. 이에 최근 인하대병원에서는 '2014 CS슬로건 선포식'을 하며 환자중심의 감동 의료서비스 실천 의지를 다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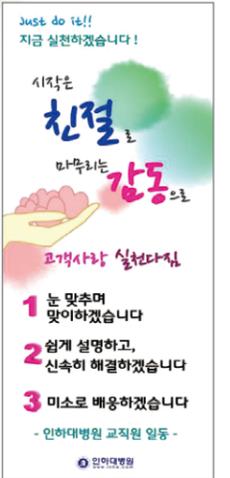


▲ 고객 만족 특별팀(CS NEW Leader) 화합&감동 워크숍



▲ 2014 CS슬로건 배지 나눔 행사

행동 강령 ▶



### “파란자켓 - 무엇이든 도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앞서가는 고객동행서비스인 “파란자켓 - 무엇이든 도와드리겠습니다” 활동을 통해 고객중심 병원문화를 형성 및 정착시키려고 노력했으며 이용하신 많은 고객으로부터 칭찬과 따뜻한 격려를 받았다. 관리지만 하던 활동을 일반직원까지 확대하여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런 분위기를 몰아 긍정적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과 직원 모두에게 더 좋은 경험과 행복을 주기 위해 2013년 12월에 고객 만족 특별팀을 구성하였다. CS(고객만족) 리더 그룹, CS Core opinion팀, CS코칭팀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직종과 직급으로 구성되어 고객감동 실천을 위한 다짐과 열정을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활기차다.

###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 행동지침

고객의 편이 되어주겠다는 마음을 실천 행동으로 옮겨 꼭 지키고자 행동지침 세 가지를 약속했다. “하나, 눈 맞추며 맞이하겠습니다”, “둘, 쉽게 설명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셋, 미소로 배웅하겠습니다.” 의 내용으로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다방면의 개선 아이디어를 내고 실천활동을 하고 있다. 고객 만족 특별팀 대부분은 간호사, 의료기사, 원무 직원 등 환자를 대하는 초 접점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로 구성되었다. 활동으로는 친절하고 유능한 직원을 칭찬하는 “칭찬릴레이”,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생생인하통” 활동, 직원들의 근무태도를 돌봐주는 “지금 이순간” 활동 등 이름도 새로울 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활동을 만들어 내고 직접 수행하며 발로 뛰는 현장의 진정한 리더들이다. 인하대병원에 들어서면 파란자켓을 입고 방문자를 맞아주는 파란자켓 매니저들이 있고 직원이나 고객 곁에는 CS 리더가 있어 그들의 귀와 발이 되어 줄 것이다.

### 칭찬을 돌려드립니다. 고객에게 감사들~~

이들은 행복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소통과 감성적 이벤트를 통해 직원이 행복하고 환자도 행복한 병원을 만들어 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는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에게 진심을 다하는 가족 같은 진료와 치유를 이룰 수 있다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직원을 칭찬해주는 고객분들께 감사의 편지를 보내드리고 “칭찬 돌려드리기 활동”을 하여 훈훈한 정을 나누고 있다. 이처럼 인하대병원은 고객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느끼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병원이 되기 위해 모든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모두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그날을 위해 소명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심장은 오늘도 뜨겁다.

**Q** 회충 또는 요충 약은 언제 먹나요?

**A** 회충이나 요충에 감염되면 항문주위가 가렵거나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은 주로 밤에 심해지는데, 기생충에 감염된 대부분의 환자는 아무런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회충이나 요충에 감염되었다고 생각되면, 상담받고 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약은 한 번만 먹으면 되나요?

**A** 기생충 약을 먹고 가려움증이 가라앉지 않으면, 7일 이내에 약을 한 번 더 복용합니다. 추가 복용을 하였어도 가려움이 계속된다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기생충 약은 성충에만 작용하며, 아직 부화하지 않은 알에는 작용하지 않으므로,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도 2주 이내에 추가복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생충 약은 부화하지 않은 알에는 적용 안 되므로  
**증상이 없더라도 2주 이내  
추가 복용 권장!**



**Q** 어떻게 감염되나요?

**A** 요충은 주로 5 ~ 10세 어린이에게 흔히 발생하는데, 식구 중에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나머지 식구들도 증상이 없더라도 다같이 구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2세 이전의 아기는 기생충 감염이 흔하지 않으며, 구충제 복용가능 연령이 아니므로 복용 전 의사나 약사의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요충은 손을 통해 쉽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옮을 수 있습니다. 요충의 알은 매우 작아서 눈에 잘 보이지 않으며, 이불, 장남감, 화장실 변기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20일 정도까지는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Q**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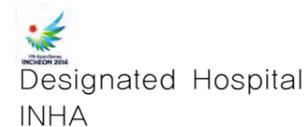
**A** 가족 모두 손톱을 짧게 자르고, 화장실을 사용한 후 또는 음식을 준비하거나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만일 요충에 감염이 확인되었다면 속옷과 잠옷은 뜨거운 물로 매일 세탁(2주간)합니다. 자는 동안 긁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잠옷 또는 편안한 바지를 입고 자는 것이 좋습니다. 기생충 알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잠옷이나 이불은 세탁 전에 털지 말고, 접어서 바로 세탁합니다.

- ♣ 항상 환자분들 곁에 인하대병원 약사들이 함께합니다.
- ♣ 약에 대한 문의는 : 주간 032) 890-3323, 3327 | 야간 032) 890-3315

건강한 아시안게임, 인하대병원이 함께합니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의료지원 공식병원 선정**



2014년 3월 11일(화), 인천시 연수구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공식 지정병원 협약식'에서 인하대병원(병원장 김영모)은 지정병원 협약을 맺으며, 성공적인 대회운영과 의료지원을 약속했다.  
인하대병원은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경기장·선수촌·본부호텔 등 104개 시설에 의사·간호사·물리치료사 등 전문 의료인력을 파견한다. 김영모 병원장은 "인하대병원은 언제나 지역사회 발전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라며 "지정병원 협약을 계기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인천이 아시아 의료관광의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고 말했다. 또한, 인하대병원은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공식 지정병원'으로도 선정되었다.



## '건강한 아시안게임, 인하대병원이 함께합니다'

### 제 17 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정병원

Designated Hospital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의료지원 공식병원 선정

2014년 3월 11일(화), 인천시 연수구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공식 지정병원 협약식'에서 인하대병원은 지정병원 협약을 맺었다.

Designated Hospital  
INHA

#### 제 1 회 인하컨소시엄 외과 술기 워크숍 성료



2014년 1월 24일(금) ~ 25일(토), 오송 Covidian Center for Innovation 에서 '제 1 회 인하컨소시엄 외과술기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본원 외과 교수진과 전공의는 물론 외과 동문들과 인천광역시의료원, 시화병원 등 외과 의료진이 참여하여 최신술기 관련 노하우 공유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수련 후 전문의 배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술교류를 통하여 인하대병원 출신 의사들의 일선 진료의 질을 높이고, 동문 모임의 기회를 늘림으로써, 향후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포괄간호서비스병원' 심포지엄 성료

- 롤 모델 제시

2014년 2월 11일(화), 인하대병원(병원장 김영모)은 '포괄간호서비스병원 시범사업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국내 상급종합병원 중 유일하게 참여한 의료기관으로서 운영결과와 발전방향 제언을 바탕으로 '롤 모델'을 제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본 시범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모델 도출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본 사업을 준비하고자 하는 신규 참여 의료기관에 사업 노하우와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자 진행되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물론, 본 사업을 운영 중인 또는 운영을 준비하고자 하는 30여 개 의료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사업의 성과와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되었다.

김영모 병원장은 "인하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최초로 본 사업을 실시하며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현장에서 환자분들과 직접 호흡하며 본 사업의 조기 정착과 '롤 모델' 제시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며 "인하대병원은 언제나 눈앞의 이익보다는 진정으로 환자를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이 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보건 의료정책실 권덕철 국장은 "본 사업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많은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국가 보건 의료정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인하대병원, 인천경영자 총협회 주관

'제2회 보람의 일터 대상' 수상



3월 12일 인하대병원(병원장 김영모)은 인천경영자총협회에서 선정하는 '제2회 보람의 일터 대상'을 수상하였다.

인하대병원은 노조설립 이후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 노사관계로 동반성장을 실천하여 왔다.

#### '인하대병원, 연구중심병원으로의 도약' -

중개·임상연구 인력양성 교육세미나 성료



2014년 3월 7일(금), 하얏트 리젠시 인천에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주최하고 인하대병원(병원장 김영모)이 후원한 '중개·임상연구 인력양성 교육세미나'

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김석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부장의 '중개임상연구의 배경 및 개념', 박창신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장 직무대행의 '미국 NIH 중개임상연구과제 소개' 등 최신의 현황과 중개임상연구분야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김영모 병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바탕으로 인하대병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라며 "특히, 중개·임상연구 관련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들을 모셔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자 간의 다각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개연구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 '인천을 넘어 아시아 교류도시에 의료손길 약속' 인하대병원, 인천광역시와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지원사업' MOU



2014년 3월 10일(월), 인하대병원(병원장 김영모)은 인천광역시(시장 송영길)와 함께 '2014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지원 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하대병원은 현재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다양한 의료봉사 등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있으며, 특히 이번 업무협약으로 인천광역시와 함께 인천을 넘어 의료환경이 열악한 아시아권 교류도시(인도네시아 반톤주, 우즈베키스탄 나보이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주 등)에 사랑의 의료 손길을 약속하게 되었다. 김영모 병원장은 "인하대병원은 지역사회는 물론 우즈베크, 몽골, 우간다 등 적극적인 해외의료봉사로 글로벌 사회공헌의 표본을 제시하고 있다."라며 "이번 협약으로 인천시와 함께 보다 체계적이고, 발전된 해외의료봉사를 실시하여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이들에게 의료혜택을 전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하대병원은 지난해부터 본 사업을 인천광역시 및 가천길병원과 함께 진행 중에 있으며, 각 기관은 신규 수혜도시와 수술인원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 인하대병원, 제 7기 건강문화 최고경영자과정 입학식 성료



2014년 3월 12일(수), 인하대병원(병원장 김영모)은 인천 중구 하버파크 호텔에서 '제 7기 건강문화 최고경영자과정 입학식'을 실시했다. 이번 입학식으로 43명의 CEO가 입과 했으며, 인하대학교 박춘배 총장과 인하대병원 김영모 병원장 등 많은 인하대병원 임직원들과 선배 원우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김영모 병원장은 "본 과정은 300여 명의 많은 CEO분들이 선택해 주심에 따라 의미있고 유익한 과정으로 성장해 가고 있으며, 전용 홈페이지 구축과 서비스 개선으로 점점 더 발전해 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인하대병원 또한 포괄간호서비스병원 시범사업 및 인천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성공적 운영과 JCI 재인증 등으로 인천지역의 거점병원으로 성장해가고 있으며, 이러한 발전은 많은 원우들과 상호 윈 - 윈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입과생들은 앞으로 약 5개월 동안 CEO의 건강관리 강좌와 문화 교양강좌, 국내외 문화탐방 등 총 20여 개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또한 인하대병원 의료진과 일대일 주치의 및 주치간호사 결연을 맺고 평생 건강관리를 받게 되며, 병원 이용 시 전담코디네이터의 안내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알레르기질환 환아 의료체계 구축 위한 협약 체결 - 안심학교 대상 유소견 학생 확진검사·환아 관리 전문 지원



2014년 3월 11일(화), 인하대병원 환경보건센터(센터장 손병관)는 남동구보건소(소장 이정후)와

알레르기 질환 환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는 △아트피·천식 등 예방관리사업에 대한 전문적 자문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강좌 △아트피·천식 안심학교 유소견자 선별검사 및 환아관리 DB체계 지원 △천식 환아 응급의료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 영상의학과 전용선 교수, 홍콩에서 개최된 LINC AP 2014 학회 초청, 강연 성료 - 학회 초청, 좌장으로 참여하여 인하대병원의 국제적 입지 높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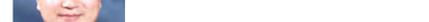
#### '인하대병원의 연구역량, 국가 암 정복에 기여' 의생명연구원 홍순선 교수, 제7회 암예방의 날 국무총리상 수상



#### 2013년도 하반기 의무기록 우수정리과 선정 -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 비뇨기과 박원희 교수, '대한척수손상학회' 회장 선출



## 사진으로 보는 인하소식

1. 인하대병원 직원봉사자 교육
2. 유방암 환자 교육
3. 제10회 인하대병원 임상간호 학술대회
4. 병원과 최연령 임상병리사 인선광역시장포칭 수상
5. 2014년도 신입전공의교육
6. 2014년도 정년퇴임식
7. 병리와 최연령 임상병리사 인선광역시장포칭 수상
8. 2014 CS 선포식

1. 불교연합회 자원봉사자 교육(2014. 3. 3)
2. 해외연수의사수료식(2014. 2. 13)
3. 간호부 2014년도 간호임상학술대회 개최  
- '간호실무 발전을 위한 간호사의 역할'
4. 2014년도 제11회 의학술대회  
-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끝없는 열정
5. 2014년도 신입전공의교육(2014. 2. 17)
6. 2014년도 정년퇴임식(2014.2.19)
7. 병리와 최연령 임상병리사 '인선광역시장포칭' 수상 - (사)대한임상병리사 인선광역시회 제 33 차 정기총회에서
8. 2014 CS 선포식(2014. 3. 5) - "시작은 친절로 마무리는 감동으로"

## 파랑새 소식

### [여성암 센터 교육 및 유방암 환우회 파랑새 행사 공지]

#### ■ 교육 예정

- 일 시: 2014년 5월 14일(수), 오후 2시 ~ 4시 30분까지
- 장 소: 3층 1 세미나실

#### ■ 지난 행사

- ◆ 2014년 2월 14일 유방암 공개 강좌 및 파랑새 정기총회
- 유방암 공개 강좌: 유방암의 이해(항호르몬 요법의 최신지견) - 조영업 교수
- 유방암 환자의 운동요법 - 김성진 운동처방사
- 파랑새 정기 총회: 2014년 회장 및 임원 선출 - 이정화 회장 선출  
100여 명의 유방암 환우와 가족들이 모여 유방암 공개강좌 및 파랑새 총회를 가졌다. 최신 바쁜 항호르몬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몸장 운동처방사인 김성진 선생님으로부터 평소에 운동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방법이나 강도,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맘 흘리면서 함께하였다. 집으로 돌아가서도 하루에 두 번 운동을 실천하여 유방암 재발률도 낮춰주고 림프부종도 예방 할 수 있



는 좋은 정보들을 받았다. 또한 평소에 궁금하던 것들을 주치의(조영업, 김세중 교수)에게 질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궁금증을 모두 해소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이정화님이 파랑새 회장을 연임하면서 작년부터 더 발전된 모습으로 파랑새를 이끌어 갈 것을 다짐하였으며 2014년에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삶의 기쁨을 찾도록 노력할 것을 서로 약속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 ■ 다음행사

- 4월 - 24일 을왕리(아침 7시 인하대병원 분수대 앞 버스 출발 예정)
- 5월 - 체육대회가 예정되어 있으나 날짜 및 장소는 미정(추후 여성암센터 홈페이지와 파랑새 카페를 통해 공지 할 예정)

#### ● 파랑새는 인하대병원 유방암 환우회의 이름입니다.

- 문의 여성암센터 ☎ 032-890-2560
- ▶ 홈페이지 www.inha.com ▷ 여성암센터
- ▶ 카페 cafe.daum.net / inhabluebird

## Info desk

### 건강교실 안내

| 건강교실명     | 내 용   | 개최일시                               | 개최장소         | 문의전화                         |
|-----------|---|------------------------------------|--------------|------------------------------|
| 유방암 환자 교육 | 유방암 환자의 식이<br>유방암 수술 후 관리 및 임파부종 관리<br>유방전문과의 상담 및 환우들과의 대화<br>- 유방암 환우 및 가족(유선 신청) | 4/10(목), 5/14(수)<br>오후 2시 ~ 4시 30분 | 3층<br>1 세미나실 | 여성암센터<br>(032)890-2560       |
| 대장암 환자 교육 | 대장암의 이해<br>대장암 환자의 영양<br>- 교육을 원하는 경우 사전 신청 바랍니다.                                   | 매월 넷째주<br>화요일 오후 1시 30분            | 3층<br>2 세미나실 | 암진료상담실<br>(032)890-3600,3638 |

### 공개강좌 안내

| 강좌 일정                   | 제목        | 강사           | 장소 및 문의 |
|-------------------------|-----------|--------------|---------|
| 2014. 04월 04(금) - 오후 3시 | 고혈압       | 심장내과 우성일 교수  | 신세계아카데미 |
| 2014. 05월 02(금) - 오후 3시 | 성인병과 건강관리 | 소화기내과 신용운 교수 |         |

●문의: 교육수련부 ☎ 032-890-2641 ●일정은 참여단체 또는 병원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시회 안내

| 전시 일정                       | 제목              | 참여 단체 / 작가      | 장소     |
|-----------------------------|-----------------|-----------------|--------|
| 2014. 03. 28 ~ 2014. 04. 17 | 사진(천만개의 사람 꽃)   | 임종진             | 2층 갤러리 |
| 2014. 04. 18 ~ 2014. 05. 08 | 그림여행전           | 그림여행 / 김영중 외    |        |
| 2014. 05. 09 ~ 2014. 05. 29 | 2014 인천물그림회 기획전 | 물그림회            |        |
| 2014. 05. 30 ~ 2014. 06. 19 | 2014년 그림 1279전  | 그림 1279 / 김경순 외 |        |

●문의: 홍보팀 ☎ 032-890-2608 ●일정은 참여단체 또는 병원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언론에 비친 인하대병원

# 명칭의

|   |  |  |   |   |  |
|---|--|--|---|---|--|
| <p>2014. 02. 07</p> <p>출연: 조재화 교수/호흡기내과<br/>프로그램: SBS 모닝와이드 -<br/>오한진 박사의 건강프로젝트<br/>내용: 최근 유행하는<br/>호흡기질환 - 폐렴</p> | <p>2014. 02. 19</p> <p>출연: 홍성빈 교수/내분비내과<br/>프로그램: MBC 불만제로 UP<br/>내용: 인산염과 글루카곤</p>                    | <p>2014. 02. 19</p> <p>출연: 임종환 교수/<br/>직업환경의학과<br/>프로그램: MBC 불만제로 UP<br/>내용: 가사제의 위생성</p>            | <p>2014. 02. 19</p> <p>출연: 정석 교수/소화기내과<br/>프로그램: 메디컬TV 뉴스<br/>내용: 담석증</p>   | <p>2014. 02. 24</p> <p>출연: 권성렬 교수/<br/>류마티스내과<br/>프로그램: 국민방송(KTV) 대한<br/>민국 행복프로젝트<br/>내용: 루푸스병</p>           | <p>2014. 02. 27</p> <p>출연: 박성준 교수/심장내과<br/>프로그램: 경인방송 상쾌한<br/>아침 원기입니다<br/>내용: 증가하는<br/>관상동맥 질환</p>    |
| <p>2014. 03. 03 - 03. 07</p> <p>출연: 유승환 교수/신경외과<br/>프로그램: OBS TV 주치의<br/>내용: 유승환 교수가 들려주는<br/>적추질환의 모든것</p>         | <p>2014. 03. 05</p> <p>출연: 인하대병원 의료진<br/>프로그램: KBS 뉴스 9<br/>내용: 공동 간병하거나<br/>병원이 간병까지</p>              | <p>2014. 03. 06</p> <p>출연: 인하대병원 의료진<br/>프로그램: KBS 뉴스 12<br/>내용: 진화하는 간병인 제도<br/>'포괄간호 서비스'</p>      | <p>2014. 03. 06</p> <p>출연: 정한영 교수/인천광역시<br/>심뇌혈관질환센터장<br/>프로그램: 티브로드 인천방송<br/>사람이인천<br/>내용: 인천광역시심뇌혈관질환<br/>센터의 역할 및 계획</p> | <p>2014. 03. 06</p> <p>출연: 이홍렬 교수/호흡기내과<br/>프로그램: KBS 생생정보통<br/>내용: 미세먼지에 의한<br/>만성폐쇄성 질환</p>                 | <p>2014. 03. 06</p> <p>출연: 이원경 교수/<br/>예방관리센터<br/>프로그램: 경인방송 상쾌한 아침<br/>원기입니다<br/>내용: 심근경색과 뇌졸중 예방</p> |
| <p>2014. 03. 11</p> <p>출연: 김영모 의료원장<br/>프로그램: KBS 뉴스7,<br/>YTN 뉴스<br/>내용: 인하대병원, 인천아시아<br/>게임 공식병원 지정</p>           | <p>2014. 03. 13</p> <p>출연: 윤혜연 교수/신경과<br/>프로그램: 경인방송 상쾌한<br/>아침 원기입니다<br/>내용: 뇌졸중의 발병원인과<br/>응급대처법</p> | <p>2014. 03. 17</p> <p>출연: 류정선 교수/폐암센터<br/>프로그램: KBS 뉴스광장<br/>내용: 겨생존율 70% '1기 폐암'<br/>도 방사선당 낭패</p> | <p>2014. 03. 17</p> <p>출연: 임재열 교수/이비인후과<br/>프로그램: MBN 건강솔루션<br/>내용: 두경부암의 예방과 치료</p>  | <p>2014. 03. 20</p> <p>출연: 오세양 교수/신경외과<br/>프로그램: 경인방송 상쾌한<br/>아침 원기입니다<br/>내용: 뇌혈관 질환, 혈관 내<br/>치료법으로 잡는다</p> | <p>2014. 03. 24</p> <p>출연: 김순기 교수/소아청소년과<br/>프로그램: MBN 건강솔루션<br/>내용: 소아암의 예방과 치료</p>                   |





# 인하대병원 - 지역 병·의원과 24시간 핫라인 구축



JCI  
인증의료기관

##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인하대병원입니다



유효기간: 2011.01.27~2015.01.26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